

대형 세탁기업 매출은 성장세, 한인 세탁업소 매출은 제자리걸음

▶▶ 1면에 이어서

상이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라는 것이다. 대형업체 디펜더블(Dependable) 등도 성장세를 기록했다.

보스톤 세탁업계의 터줏대감인 노명호 전 세탁협회 회장은 “세탁업계는 과거의 퀄리티 승부가 아니라 대형화 그리고 첨단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승부가 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매출이 줄 때 인근에 새로운 세탁소가 생겼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형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딜리버리 및 픽업을 하기 때문에 누가 고객을 앗아가는지 확인할 길도 없다”는 것이다.

대형화 기업화된 미국 세탁업체들은 첨단 GPS를 활용한 딜리버리 및 픽업시스템 및 차량을 갖추고 있다. 종업원 임금도 훨씬 높게 지급한다. 대형 세탁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의 드롭오프(Drop-off)샵을 싸게 렌트해 카운터에 집중 투자한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이 업체들은 고급 식당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첨단 세탁장비로 인해 한국업체와의 품질차이도 거의 없다.

가격이 비싸도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옷을 맡기고 받는다. 노전회장은 “이젠 식품마저도 딜리버리하는 세상인데 세탁물은 왜 안 그러겠냐”고 반문한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애드코, 레이드로 비누를 공급하는 브라

이언 매씨는 “픽업, 딜리버리를 하지 않는다면 5년내에 소규모 세탁소는 문을 닫는다”고 단언할 정도다.

노전회장은 “한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왔지만 미래는 보지 못했다. 일하고 집사고, 자녀들 키우고 하느라 지금 같은 상황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제 세탁소 매출이 나와도 쉽게 팔리지 않는다.

노회장은 “이런 측면에서 한인 세탁업계는

“픽업, 딜리버리를 하지 않는다면 5년내에 소규모 세탁소는 문을 닫는다”

브라이언 매씨(애드코 등 세제 공급)

“한인 세탁업계는 더 늦기 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노명호 전 세탁협회 회장

더 늦기 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소한 한인 대형공장이라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실 세탁협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논의는 20여년 전에도 나왔었다. 그러나



대형화 기업화된 미국 세탁업체들은 첨단 GPS를 활용한 딜리버리 및 픽업시스템 및 차량을 갖추고 있다

당시 큰 어려움이 없던 한인들은 자신들 업소에 집중했을 뿐 이 같은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현재 한인 세탁협회는 사실상 불능화되어 있다. 누구도 협회장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자체 생존에 바쁜 세탁인들이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는 협회에 신경을 쓸 여유도 없다. 최동인 전 세탁협회장은 “회원들의 무관심이 지금의 상황을 자초한 것도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은 뜻이 맞는 일부 업체들이라도 선구적인 공동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한인세탁업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작업이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회장의 지적이다. 세탁협회 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2년 후인 2020년엔 상기를 제외한 주상복합 건물에서는 현재의 퍼크(Perk) 드라이클리닝 기계도 모두 친환경 기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한인 세탁업소들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조은구 회장은 “누가 세탁협회장을 하든지 정말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손정봉 전 세탁협회장은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누구든 총대를 메려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최회장은 “협회가 정말 (회원들에게)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리더십이 아쉽다”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대니얼 고 연방하원 후보 13일 재개표 시작

재개표로 122표차이 극복할 수 있을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니얼 고(이하 덴고) 연방하원 MA 3지역구 민주당 후보가 13일부터 시작되는 재개표에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됐다. 주무장관실에서 10일 최종 확인한 개표수에 따르면 트래한 후보가 18,527표, 덴고 후보가 18,405표로 122표차로 집계됐다. 주법에 따르면 모든 개표는 오는 9월 17일 월요일까지 각 타운별로 완료되어야 한다.

덴고 선거본부는 10일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덴고는 모든 투표가 전부 재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총 8만5천여표의 투표에서 아주 근소한 수치의 차이만 보인 것과 일부 시의 상당분량의 투표가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 주 무장관이 투표 집계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 등은 정확한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덴고 후보는 재개표 신청 마감날인 9월 7일 공식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윌리엄 갠빈 장관은 10일 3지역구 재개표를 선언했다. 윌리엄 갠빈 장관은 10일 재개표를 선언하며 로렌스와 로웰의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선거관리위를 주무장관실에서 직접관할하겠다고 밝혔다.

재개표에서는 모든 투표용지는 개표요원들이 수작업으로 개표한다. 가장 먼저 개표를 시작한다



대니얼 고 연방하원 MA 3지역구 민주당 후보 재개표가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다

윤은멧두은으로 13일 오전 8시 재개표에 들어갔다. 주무 장관실에서 관할하는 로렌스는 15일 오전 9시, 로웰은 16일 오전 9시에 각각 개표한다.

이번 개표과정은 일반에게 공개되며 각 후보자 측은 각각 개표 참관단을 보내 개표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한편 덴고 선거본부 레이첼 골든버그씨는 “37개 시의 투표지는 다음주에 걸쳐 모두 수작업으로 개표되기에 재개표 과정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sec.state.ma.us/ele/elerecount/re-countidx.htm>

hsb@bostonkorea.com

9/26 National Foundation Day Reception
9PM, Algonquin City of Boston
217 Commonwealth Avenue, Boston
*By Invitation Only

We celebrate the foundation of Gyeongju, the first nation established in the Korean peninsula 4,000 years ago.

Renowned violinist Seon-Yong Yoo, winner of the 2014 Paganini Violin Competition and ranked by the Boston Globe for his “sensible technique and a tender warmth of tone”, will deliver his performance.

All the reception, you will also have a chance to taste a selection of Korean cuisine as well as Korean traditional liquor served by experts from Seoul.

9/27 Cooking Demonstration & Tasting w/ Chef Tony Yoo
7PM, Excellence 1 Boston University
400 Commonwealth Avenue, Boston
*Free & Open to the Public
*RSVP via Eventbrite

We invite a renowned celebrity chef Tony Yoo (Yoo Hyun-Su), one of the most famous chefs in Korea, to introduce the beauty and delicacy of the Korean foods, especially traditional temple food to Bostonians.

At the event, Chef Yoo will show the cooking of two or three Korean traditional dishes and the invited gues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aste one of his dishes.

Chef Tony Yoo (Yoo Hyun-Su) learned to make traditional Korean dishes while working temple food under Monk Seunggi. Chef Yoo got the recipe for his signature main dish, *soondubu-jjigae*, which is a type

9/28 Movie Night "The World of Us"
for Lee Dong-woo & Yoon Goo-Kwan
8PM, David Friend Recital Hall / Boston
811 Boylston St., Boston
*Free & Open to the Public
*RSVP via Eventbrite

Director Dong-woo and Cinematographer Yoon Goo-Kwan, who were well-acclaimed both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a collection of their best works, seemingly simple but full of emotional resonance.

Philharmonia Orchestra

추석맞이 코리아워크 축제, 지금 신청하세요

▶▶1면에 이어서

- 9.26(수) 오후 5시 국경일 리셉션 행사
- 9.27(목) 오후 2시 한국 문화 소개(시조, 판소리 소개), 보스톤칼리지 로스쿨 국내 유명 유현수 셰프 초청 한식 소개 행사(총영사관저)
- 9.28(금) 9시-12시 하버드 벨퍼 센터 세미나, 2-4시 Boston Univ. 유현수셰프 한식소개 행사
BU Programs in Food & Wine
(808 Commonwealth Avenue Room #117 Brookline, MA 02446)
- 한국 영화 <우리들> 상영(윤가는 감독, 이동진 영화평론가 초청, 영화 Talk 진행 David Friend Recital Hall(921 Boylston St boston, ma 02115)
- 9.29(토) 7시 30분, 화음보스톤 정기 공연 <평화로의 여정>
Tufts Granoff Music Center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에서 9.20(목) 4PM에 CCRI Flanagan Campus에서 한국 영화 <국제시장>을 상영하고, 영화와 관련한 한국 역사에 대해 토론과 한식 음식 시식 행사를 준비한다.

행사 참가 사이트주소
유현수 셰프 한식 소개 행사 : <https://www.eventbrite.com/e/korea-week-cooking-demonstration-tasting-with-chef-tony-yoo-registration-49397054921#tickets>
Movie Night : <https://www.eventbrite.com/e/korea-week-movie-night-the-world-of-us-registration-49285231454?utm-medium=discovery&utm-campaign=social&utm-content=attendee-share&utm-source=cp&utm-term=listing>
hsb@bostonkorea.com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8, 2018

Class	Time	
PSAT/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I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학교동창회는 지난 9월8일 (토) 뉴튼에 소재한 어번데일 (Auburndale) 공원에서 가을 야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대학교동창회 야유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학교동창회는 지난 9월8일 (토) 뉴튼에 소재한 어번데일 (Auburndale) 공원에서 가을 야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5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주최측에서 준비한 바베큐 음식과 후식 등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은상 회장 주재로 이사회를 진행한 후 즐거운 식사와 답소의 시간을 가졌으며, 식사 후에는 함께하는 동창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동창회에 대한 신입 윤희장의 인사

말과 새 임원진 소개가 있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윤상태 회장이 미주 동창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및 뉴잉글랜드 지부의 중요성 및 참여 의식을 치하하였다. 또한 동문으로 참여한 김용현 총영사는 총영사 활동 및 9월 말에 계획된 '코리아워크'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영사 안내 시간도 가졌다.

서울대 동창회의 주요 산하 모임인 산우회의 김정선회장은 산행에 관하여 피소드 및 산행의 즐거움을 설교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을 갖고 동문의 흥미를 끌기도 하였다. 이어 52학번 김

대식 동문부터 94학번 김소연 동문까지의 소개와 그시대 회상을 가지며 서로 알아가는 자리를 가져 학창 시대로 돌아간 동문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창회에서는 다음 행사로 12월 8일(토)에 연말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과 그밖의 전반적인 행사 계획, 지난 행사 사진들은 <http://sites.google.com/site/snuane>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소록 업데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무료 영어 클래스 가을학기 등록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데이비스 스퀘어에 위치한 다민족 교회, 서머빌 커뮤니티 침례 교회 (Somerville Community Baptist Church)에서 2018년 9월 27일부터 지역사회의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한 무료 영어클래스(FREE English Class)가을학기를 시작한다.

은 8-10명으로 제한하며 2명의 교사가 가르친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수준의 영어를 배우기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교재를 포함 수업료 일체 무료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수업엔 등록할 수 있다.

수업은 12주를 한 학기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루어지며, 총 3개의 수업들(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로 구성되어 있다. 한 Class 당 학생

등록은 교회 웹사이트 www.ilovescbc.org에서, 문의는 전화 617-625-6523 (English/Korean) 혹은 이메일 ilovescbc@gmail.com (English/Korean) 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미노인회 사랑방모임 19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노인회는 9월 사랑방 모임을 9월 19일 셋째주 수요일에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회에서 갖는다.

인댄스, 난타, 카톡셋팅 클래스, 요가강의 및 점심식사 등으로 구성되면 식사 후 자유시간에는 난타연습, 바둑, 탁구 등의 개인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은 9시 커피타임부터 라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추석 맞이 특별 프로모션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천녹정 30g 두개 증정

Event 2

3+1 Promotion

에브리타임, 화애락본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Event 3

천녹정 구입시
천녹정 30g 네개 증정

BEST DEAL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전화 주문 **781-238-0303**

FEDEX로 주문주 1-2일 안에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MART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페이스북 김용총재 사칭 4만여불 가로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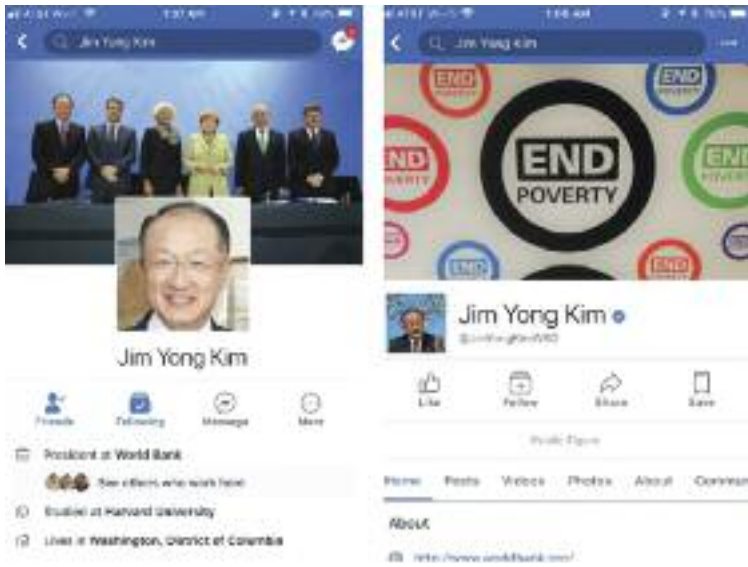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김용(Jim Yong Kim) 세계은행 총재를 사칭해 그랜트(Grant)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4만여불을 가로챈 사기가 발생했다.

위스콘신 주 한 한인인 김용세계은행 총재가 페이스북 친구맺기 신청한 것을 8월 4일 확인하고 이를 수락했다. 이 사기범은 김용총재 이름을 사칭해 허위 페이스북 계정을 Jim Yong Kim으로 개설했다. (본보 6월 7일자 '김용총재가 폐북친구를 신청했다' 기사 참조) 이 계정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김용총재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사기범은 곧바로 메시지를 통해 "총재를 연임하게 되어 인류공영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랜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피해 한인을 유혹했다.

피해 한인이 한인박물관 또는 한국 문화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내용으로 150만불 지원 신청서를 보내자 사기범은 이메일과 카톡으로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연락했다. 이 사기범이 김용총재를 사칭하고 카톡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한국인 또는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사 선임 및 MOU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라는 사기범의 요구를



친구신청이 된 상태인 가짜 김용총재 계정(좌), 실제 김용총재 계정은 친구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받고 피해자는 8월 9일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내셔널와이드뱅크(Nationwide Bank)에 그랜트 금액이 전달될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

돈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는 홍콩 상하이뱅크 이스탄불 지점을 칭하는 곳에서 이메일 받았다. 거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테러나 마약자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고등법원에서 심의해야 하니 스탬프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것이어서 다시 이 비용을 송금했다.

느닷없이 터키 정부에서 피해자의 신뢰도가 부족하며 재정능력을 파악

해야 한다며 10만불 은행 잔고를 스캔해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4만불의 은행잔고를 스캔해서 보냈다. 사기범은 환급해주겠다고 4만불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4만불을 송금하자 사기범은 영수증과 함께 송금 예정 금액의 2.5% 세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미심쩍어하다 결국 자신이 사기당한 것을 알게됐다.

총영사관은 "한인 교포가 김용 세계은행총재를 사칭하는 페이스북 사기피해를 입었기에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이를 공지했다.

hsb@bostonkorea.com



H마트, "한아름 고국통신판매" 시작

2018 추석맞이 인기상품 최대 35% 할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9월 24일 추석을 앞두고 H마트 "한아름 고국통신판매" 서비스가 인기상품들을 최대 35% 할인하는 특별판매행사를 진행한다.

"한아름 고국통신판매"는 명품 한우, 최상급 LA갈비, 굴비, 활전복, 과일뿐만 아니라 유기농 상품,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여 한국으로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2017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녹색한우 선물세트, 농협 명품 암소 한우 선물세트, 고창수협군 이인증장어 등최상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30여가지가 넘는 고

국통신 인기상품들의 한국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50 미만의 실속 선물세트도 판매하며, 전 상품을 무료로 배송한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영업일을 기준으로 평균 2-3일, 제주 및 산간 지역은 약 4일 정도가 소요되며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배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휴 시작 전 배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9월 15일 전까지 주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문은 H마트 웹사이트(www.hmart.com)와 TOLL FREE 전화(1-800-648-0980) 혹은 H마트 매사추세츠 벨링턴 매장에서도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제 6회 한미예술협회 가을 전시회

9월 22일부터 렉싱턴에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가을마다 개최하는 미술 전시회가 오는 9월 22일(토)부터 10월 6일(토)까지 렉싱턴 아트앤크래프트소사이어티(Lexington Arts & Kraft Society)에서 열린다.

201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강달래, 김사울, 김영숙, 김영아, 김은희, 김희정, 박혜영, 변순득, 신영, 안영신, 여연희, 유수례, 이경아, 이지은, 장유나, 정명숙, 정혜민, 조미애, 조인선, 황지영, 허선희 등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1명의 한인 작가들과 미국인 초청 작가인 리처드 카트만(Richard Kattman)이 참여한다.

독특하고 예술적인 대작들로부터 선물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유화, 아크릴, 수채화, 사진, 세라믹,

장신구, 개량 한복 등 다양한 소재와 용도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 준비와 진행은 예술협회의 미술위원장인 허선희씨가 맡았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9월 22일(토) 오후 2시-4시에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하면 작가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문의: 781-367-5993)

〈전시회 정보〉

제 6회 한미예술협회전

Lexington Arts & Craft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전시 기간: 9월 22일(토) - 10월 6일(토)

리셉션: 9월 22일(토) 오후 2시-4시

운영 시간: 월요일 휴관, 화-금 및 일요일 오후 12시-4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주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 이사장 정정숙)

bostonkorean@hotmail.com



올해 전시될 예정인 작품들



작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습

지구촌 한인 사회 젊은 주역들 한 자리에

전 세계 24개국 80여명 차세대 리더 참가 맞춤형 프로그램 통해 네트워크 확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24개국 약 80여명의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하는 '2018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를 개최한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를 슬로건으로 9월 17일(월)부터 21(금)까지 4박 5일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경영, 법조, 예술, 의료,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또, 남북간 평화 무드 속에서 모국과 거주국 간 차세대 동포들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올해 대회 주요 참가자로는 변 얼 아르헨티나 현대화부 공공혁신 최고책임자 겸 디텔라 대학 교수, 김하나 토론토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관장, 강태석 Taeseok Kang LT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남아공 최초 한인 공인 회계사로 현직 아디다스의 부장 회계사인 구현동, 노르웨이 입양동포이자 오슬로 대학병원 외과 의사인 오영수 등이 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전 통일부 장관이

중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 전망' 이라는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한다. 이어 외교부장관 주최 환영만찬과 참가자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진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FLC 토크콘서트, FLC 세계시민포럼과 국내 차세대 전문가와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계 시민으로서 차세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

19일 오전에는 과주 DMZ를 방문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문화 체험, 지역별 네트워크, 체육대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1일 국무총리 공관 예방과 오찬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한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모국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전 세계 한인 사회를 이끌 주역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가 차세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처음이시죠? - 이것만은 알아둬시다 2

세금후, 세금전... 팁은 얼마만큼 주어야 할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팁은 받은 서비스만큼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팁이 관례화되어 있는 미국사회에서 꼭 그렇지는 않다. 미국의 팁 문화의 근본적인 사고는 "내 물건을 만지게 했으면 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모든 전문가들이 특정한 팁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미국에 사는 동안 만큼은 이 팁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팁을 받는 직업의 최저임금이 일반직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있다. 팁을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소득의 일부로 이미 계산에 넣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좋은 서비스는 값비싼 수고다. 미국 서비스업이 현재의 제도를 바꿔서 고객이 낮은 서비스 임금의 일부분을 채우지 않도록 하기 전까지는 여행시 늘 지갑을 열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팁은 자발적인 것이다. 그러나 팁의 양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 팁을 주지 않거나 소심한 팁을 놓는 경우 두고두고 뒷담화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다음은 보스톤글로벌가 미여행대 행사협회와 호텔협회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제시한 팁 가이드라인이다.

팁을 얼마나 줄 것인가

- 호텔, 셔틀 운전사(Hotel or rental car courtesy shuttle driver)
팁은 운전자가 백을 운반해 주었을 때 개인당 \$1 to \$2, 또는 2-3명인

경우 \$4 to \$5

• 택시

택시 운전사에게 최소 10-15% 팁. 만약 아주 무거운 백을 꺼내거나 실어주었을 경우 20% 이상의 팁을 줄 것.

• 공항 도로변 체크인시 (Curbside check-in)

첫번째 짐가방에 \$3의 팁을 주며 추가 가방에는 \$1씩

• 공항 또는 기차역 짐꾼들 (Porter at airport or railway station)

짐가방 1개에 \$1

• 호텔 및 식당 주차요원 (Valet parking attendant)

차를 가져다 주었을 경우 \$1-\$5까지 팁을 줌. 차를 맡길 때는 기분에 따



라

• 호텔 도어맨

만약 문만 열어주고 인사하는 경우 팁을 주지 않아도 됨. 하지만 택시에서 쇼핑백을 들어서 프론트데스크에 놓아주거나 우산을 씌어 준다거나 하면 \$2-5의 팁을 주어야 한다.

• 벨맨 또는 포터(Bell staff/porter)

짐을 방까지 가져다 주었을 경우 짐가방당 \$1-5까지 특히 짐가방이

무거웠거나 친절하게 주변을 안내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팁을 더 준다. 만약 체크아웃시 벨스텝서비스를 요청했다면 같은 금액의 팁을 주어야 한다.

만약 팁을 주고 싶지 않은 경우 벨스텝 및 포터에게 짐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된다.

• 호텔에 짐가방을 맡길 때

가방을 찾을 때 가방당 \$1의 팁을 주면 됨. 하지만 가방을 맡길 때 팁을 줄 필요 없음.

• 호텔 안내원(Concierge)

얼마나 요청했는지에 따라 \$5-10의 팁을 주거나 떠날 때 한꺼번에 줄 수 있음. 특히 이 안내원이 특별히 도움을 주었거나 할 경우 더 많은 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한 방향 안내나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에는 팁이 필요없음

• 하우스키핑 Housekeeping

호텔의 상태와 서비스 정도에 따라 하룻밤에 \$1에서 \$10까지 줄 수 있다. 매일 팁을 주어야 하며 봉투에 명확히 하우스키핑에 대한 팁을 밝히



는 노트와 함께 주는 것이 좋음

• 룸서비스 Room service

팁은 15-20%를 주어야 하는데 요 금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만 준다.

• 여행안내원 Tour guides

한 사람당 하루에 \$5-\$10정도 팁이 적당함. 버스 운전사에게는 더 적게 팁을 주면 된다.



• 우버, 리프트 운전사

과거에는 필요없었으나 만약 운전사가 아주 친절했을 경우 앱에서 추후 적은 금액의 팁을 줄 수 있다.

• 바텐더 Bartender

한잔에 \$1-2불을 팁으로 줌. 만약 나중에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탭(tab)을 오픈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15-20%를 팁으로 주면 된다.

• 웨이터 /웨이 추 레 스 Waiter/Waitress

전체 금액의 15-20%를 팁으로 줌.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은 경우 20%가 기본임. 세금전 금액을 기준으로 팁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후 총액을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최근에는 세금후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추세이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시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아우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선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가을과 함께 돌아온 애플피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뉴잉글랜드의 사과 맛은 좋다. 제철에 농장에서 직접 따 사과 맛은 여름이 끝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만큼 달콤하다. 애플피킹을 제공하는 농장은 뉴잉글랜드 지역에만 50개가 넘는다. 그중 보스톤에서 가까운 11곳의 농장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농장들이 애플피킹 외에도 동물들을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패딩주, 건초 마차 타기, 옥수수 미로 등을 운영하고 있어 사과의 맛이 아니라도 방문할 이유는 충분하다. 농장마다 운영 시간과 재배하는 사과 종이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1. Belkin Lookout Farm

미국 내 현존하는 농장 중 가장 오래된 곳이지만 설비만큼은 최신이다. 기차를 타고 사과, 복숭아, 호박을 따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아이들 놀이터, 피크닉 테이블, 건초 마차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에 적격이다. 사과 값 외에도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과 한봉지 가격: \$14; 입장료 \$15
89 Pleasant Street, South Natick; 508-653-0653; lookoutfarm.com



2. Boston Hill Farm

12세대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는 농장으로 전형적인 뉴잉글랜드 경관과 신선한 먹거리가 있는 곳이다. 파이, 애플 사이드 도넛,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딩주에는 닭과 거위, 토끼, 염소, 양, 송아지 등이 있다. 라이브 음악이 있어 가을 축제에 온 기분이 들 것이다. 이 농장의 애플피킹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사과 한봉지 가격: \$20

1370 Turnpike St, North Andover; 978-681-8556; bostonhillfarm.com



3. Brooksby Farm

복숭아 피킹 시즌이 끝나는 9월 초부터 애플피킹이 시작된다. 농장 내 베이커리에서 애플 사이드와 사이드도



넛을 만들어 판매한다. 패딩주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사과 한봉지 가격: \$10

54 Felton St, Peabody; 978-531-7456; brooksbyfarm.org

4. Carlson Orchards

최고의 애플 주스 맛으로 유명한 칼슨 농장은 14종의 사과를 비롯해 다양한 베리와 호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 사과 외에 다른 과일 피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자. 근처 에이어 (Ayer) 지역에 중화요리로 유명한 우정식당이 있으니 애플 피킹을 마치고 들리는 것도 좋겠다.

115 Oak Hill Road, Harvard; 800-286-3916; carlsonorchards.com

5. Connors Farm

옥수수 미로로 유명한 농장으로 애플 피킹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건초마차 타기, 침대들을 위한 좀비 페인트 볼과 유명한 농장집 등이 있다. 올해 미로의 주제는 "크레이지 기차"로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과 한봉지 가격: \$11

30 Valley Rd, Danvers; 978-777-1245; connorsfarm.com



6. Dowse Orchards

20종 이상의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사과 맛이 궁금하다면 이 농장을 추천한다. 60년동안 운영되고 있는 농장 가판대에서는 신선한 가을 수확물을 다양하게 구입 할 수 있다

사과 한봉지 가격: \$16

98 N Main St, Sherborn; 508-563-2639; dowseorchards.com

7. HoneyPot Hill Orchard

12종의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곳으로 입장료 18불을 내면 사과를 담을 수 있는 봉투와 건초 ▶▶9면으로 계속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전상품 무약정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8면에 이어서



마차 탑승권, 사이다 도넛, 캔디 애플, 헤지 미로 이용권이 주어진다. 헤지 미로는 4세에서 11세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선한 사과주스와 사이다 도넛, 애플파이로 유명하다.

입장료: \$18
138 Sudbury Road, Stow; 978-562-5666; honeypothill.com

8. Parlee Farms
난쟁이 크기의 사과나무가 재배되는 곳으로 아이들과 함께 애플 피킹을 하기에 제격이다. 애플 사이다와 도넛 만드는 과정을 농장 가판대에서 구경할 수 있다. 농장의 동물들과 놀



이터가 있어 하루종일 아이들과 놀기에 좋다.

사과 한봉지 가격: \$25
95 Farwell Road, Tyngsboro; 978-649-3854; parleefarms.com

9. Russell Orchards
14종의 사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재배하는 곳으로 포도주



양조장이 있어서 이곳에서 재배하는 과일로 만든 와인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블랙베리와 블루베리 또한 피킹 가능하다. 동물 농장과 건초마차 타기 등이 제공된다.

사과 한봉지 가격: \$20
143 Argilla Road, Ipswich; 978-356-5366; russellorchards.com

10. Tougas Family Farm
20여종의 사과를 재배하는 농장으로 보스톤에서 한시간 미만의 거리에 위치하여 인기가 많다. 키가 작은 사과 나무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애플 피킹 하러 가기에 좋다. 이외에도 농장 동물과 페이스 페인팅, 경운기 열차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현재 사과 외에도 복숭아와 블랙베리 피킹이 가능하다.

사과 한봉지 가격: \$30
234 Ball Street, Northboro; 508-393-6406; tougasfam.com

11. Smolak Farm
보스톤 인근에 위치한 농장 중 가장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재배하는 곳이다. 20여종의 사과를 가방에 담은 동안 아이들은 동물농장, 건초마차타기, 미로를 즐길 수 있어 온가족 나들이 장소로 적격이다.

사과 한봉지 가격: \$20
315 South Bradford St., North Andover; 978-682-6332; smolakfarms.com
sun@bostonkorea.com



뮤지컬 해밀턴 보스톤 공연이 9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18일 종영까지 매일 40장의 티켓을 로터리를 통해 장당 \$10에 배포한다

뮤지컬 해밀턴 티켓 \$10에, 로터리 시작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뮤지컬 해밀턴 보스톤 공연이 9월 18일부터 시작한다.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밀턴 관람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18일 종영까지 매일 40장의 티켓을 로터리를 통해 장당 \$10에 배포한다.

해밀턴 로터리는 공연 2일전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며 공연 하루전 오전 9시에 마감한다. 예를 들어 9월 18일 공연

의 경우 10일 오전 11시부터 로터리가 시작해 17일 오전 9시에 마감한다는 의미다. 로터리에 당첨되면 2장의 티켓을 받는다.

해밀턴 로터리를 신청하려면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앱 "Hamilton"을 다운받거나 hamiltonmusical.com/lottery에서 할 수 있다. 주최측은 추천일 오전 11시까지 당첨자 여부를 알려준다.

해밀턴 로터리 티켓의 이름은 #HAM4HAM 즉 "Hamilton" for a Hamilton이다. \$10짜리 지폐의 얼굴이 해밀턴이니 해밀턴 공연을 \$10이라는 의미다. 즉 로터리에 당첨된 행운아들은 반드시 통지받은 날 오후 4시까지 티켓당 \$10씩 크레딧카드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행운을 빈다.

hsb@bsotonkorea.com

웨스트나일 10번째 감염환자 발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올해들어 10번째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했다고 7일 오후 밝혔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된 10번째 환자는 에섹스 카운티의 60대 남성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다. 보건부는 린, 몰든, 멜로스, 리버, 서거스 그리고 윈스랩 지역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위험 수준을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모니카 바렐 보건부 장관은 "위의 지역에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 모기의 개체수 발견이 계속되고 있어 이 지역의 주민들이 모기에 물려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계속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고 모기에 물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내로 대피하라"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지난달 27일 알링턴, 보스톤, 벨몬트, 브루클라인, 케임브리지, 첼시, 에버렛, 메드포드, 뉴튼, 서머빌,



그리고 워터타운의 위험수위를 높음으로 조정한다.

hsb@bsotonkorea.com

로웰지역 두번째 좋은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유에스 뉴스 2019 대학 순위 프린스턴 1위

종합 대학 순위 8년 동안 1위 고수
리버럴 아트 칼리지 1위는 윌리엄스
하버드는 2위, WSJ는 하버드가 1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올해도 변함없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여러 대학교들이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발표하는 대학교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장식했다.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대학 순위는 여러 비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학 순위다.

지난 10일 발표된 2019 미국 종합 대학 순위에서는 8년 연속으로 프린스턴 대학이 1위를 차지했다. 하버드 대학은 2위를 기록했다.

프린스턴은 유일하게 종합 점수 100점을 기록하였고, 하버드는 96점이었다. 예일과 MIT가 공동 3위를 기록했는데, MIT는 지난 해 공동 5위에서 순위가 소폭 상승하였다.

미국 종합 대학 순위에서 찾을 수 있는 매사추세츠에 소재한 대학들은 텡스 대학이 27위, 브랜다이스 대학이 35위, 보스톤 칼리지(BC)가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스톤 대학(BU)은 42위, 노스이스턴 대학은 44위에

랭크되었으며, 주립대학교 중에서는 유매스 앰허스트가 70위를 기록하였다.

학부 교육 중심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 순위에서는 매사추세츠 서부에 위치한 윌리엄스 칼리지가 1위에 올랐다. 윌리엄스 칼리지는 16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 순위에서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 중에서는 앰허스트 칼리지 작년과 마찬가지로 2위, 웰슬리 칼리지가 3위를 차지했다.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해 16개 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점수를 매긴 후 점수에 따라 순위를 나누었다.

2019 베스트 칼리지 전체 순위는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 홈페이지(<https://www.usnews.com/best-colleg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프린스턴 대학은 8년째 유에스 뉴스의 종합 대학 순위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의료보험 비용 상승폭 둔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의료보험 비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폭은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지출된 총 비용은 611억 달러였다. 전년보다 1.6% 증가한 수치이며, 매사추세츠 주민 1명당 8,900달러가 지출되었다.

당초 주 정부는 연간 3.6%씩 매년 의료보험 비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년 연속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의료보험 비용상승률은 주 정부의 예상치

를 밑돌았다.

매사추세츠 보건 정책 위원회의 스타우트 알트먼 의장은 "12년 동안 매사추세츠 주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제 매사추세츠 주는 의료보험 비용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알트먼 의장은 실제 소비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 소규모 회사 직원들의 보험 비용, 처방전 의약품 비용 등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Boston.com



축 개업 25주년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보스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은?

혼다 어코드 1위, 토요타 캠리 2위
미국 전체는 37년째 포드 F 시리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빼놓을 수 없는 이동 수단이다.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혹은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어떤 차량이 보스톤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지 보스톤 글로브가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보스톤 글로브가 매사추세츠 차량 등록국(RMV)에서 개인 명의로 등록된 460만 대의 자동차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보스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은 혼다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코드이다. 그 뒤를 이어 토요타의 캠리와 코롤라가 가장 많이 RMV에 등록되어 있다.

다음은 보스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상위 10개 모델이다.

1	Honda Accord	4.22%
2	Toyota Camry	4.14%
3	Toyota Corolla	3.49%
4	Honda Civic	3.34%

5	Toyota RAV4	3.06%
6	Honda CRV	2.78%
7	Nissan Altima	1.93%
8	Toyota Highlander	1.58%
9	Nissan Rogue	1.51%
10	Subaru Forester	1.18%

매사추세츠 전체 자료와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토요타의 캠리(3.53%)이고, 2위가 혼다의 어코드(3.23%)이다.

보스톤 글로브 웹사이트 (<http://apps.bostonglobe.com/metro/graphics/2018/09/cars-by-town/>)를 방문하면 각 타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의 기록은 미국 전체 비교하여 차이가 난다. 미국에서 37년째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은 포드의 F시리즈 픽업 트럭이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차량은 혼다 어코드이다



청소년 전자담배 전염병 수준 FDA, 전면금지 검토

차단 못하면 전면금지, 1300개 소매점에 경고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보건 당국은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이 전염병 수준이라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전면금지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12일 CNN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 스콧 고들립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전자담배 불법 전자상거래를 막지 못하면 전면판매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들립 국장은 "조심스럽게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며 "전자담배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매우 위험한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중독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1100여개의 소매점과 5개 주요 전자담배 제조업체가 FDA의 경고장을 받았다. FDA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131개 상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FDA 조치에 따라 줄 등 5개 주요 전자

담배 제조기업들은 60일 안에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FDA는 특히 크림, 박하, 망고 등 맛이 첨가된 전자담배를 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10대들 사이에서는 맛을 지닌 전자담배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고들립 국장은 "맛이 첨가된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초강수 조치까지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한 해 48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담배가 흡연율을 늘리는 주요인이라는 게 FDA의 판단이다.

고들립 국장은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니코틴 함유량이 적어 사망률을 낮추는데 유리하다"면서도 좋은 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량의 니코틴이라도 미성년자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ngela0204@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애플, 아이폰 신제품 3종 발표 더 크고 더 비싸졌다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애플이 12일 신형 아이폰 3종과 애플워치를 발표했다. 아이폰은 화면은 더욱 커지고 애플워치는 건강 체크 기능이 대폭 늘었다.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애플 캠퍼스내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출시행사인 '게더 라운드'를 열고 아이폰 XS(텐에스), 아이폰 XS 맥스, 아이폰 XR 등 3종의 신형 아이폰을 선보였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아이폰 XS는 수술용 스틸(철)을 프레임에 썼으며, 도금 처리가 돼 있고, 뒷면은 유지소재로 제작했다.

색상은 골드·실버·스페이스 그레이 등 3종이다. 화면 크기는 5.8인치·6.5인치 2종류였다. 이 중 6.5인치의 명칭이 아이폰 XS 맥스다.

아이폰 XS는 새로운 A12 바이오닉 칩이 탑재돼 있고 세계 최초로 7나노미터 공정을 거쳤다. 특히 A12

바이오닉 칩은 8코어 뉴럴 엔진이 장착돼 있어 작동 속도가 개선됐다. 저장 용량은 64GB, 256GB, 512GB 등이 있다.

이번 기기에 채택된 E-심은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통신사의 지원을 받는다. 가격은 아이폰 XS가 999달러, 아이폰 XS맥스가 1099달러부터다. 방수 기능도 있고 맥주에 빠져도 안전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하나의 신형 모델은 아이폰 XR이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됐으며 흰색, 블랙, 블루, 산호색, 노란색 제품으로 구성된다. 화면은 에지 투 에지 LCD 6.1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인면인식이 가능하며 트루템스 싱글렌즈 카메라를 장착했다. 저장 용량은 64GB, 256GB, 512GB 등 3종류다. 가격은 749달러부터 시작된다.

아이폰 XS와 XS맥스는 오는 14일부터 예약 주문을 받고 오는 21일

출하된다. 아이폰 XR는 다음 달 19일부터 예약 주문을 받고 같은 달 26일에 출하된다.

애플 워치 시리즈 4도 공개됐다. 화면은 기존 애플워치보다 30% 확대됐다. 심장 박동수의 이상을 감지하는 심전도 검사 기능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애플워치 시리즈 4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도 받았다. 가격은 위성항법장치(GPS) 모델이 399달러, 셀룰러 모델은 499달러다. 이달 14일부터 주문이 가능하며 21일 출하된다. 쿡 CEO는 세계 최고의 위치라고 단언했다.

acenes@news1.kr



애플이 지난 9월 12일 발표한 iPhone 신제품



미 가계소득 3년째 증가 소득하위층은 뒷걸음질

2017년 가계소득 중간값 6만1372달러...1.8% 증가
빈곤층 소득은 4.5% 감소...구조적 한계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지난해 미국의 가계소득이 3년 연속 증가했고 2007년 금융위기 발발 이전 수준으로 확실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계소득 중간값은 6만1372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8% 늘었다. 다만 이 증가폭은 2015년 5.2%, 2016년 3.2%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빈곤율도 하락했다. 인구조사국은 지난해 미국인의 12.3%가 빈곤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2016년 12.7%에 비해 0.4%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가계소득의 증가는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이 늘어난 까닭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간소득은 실제로 감소했지만 일자리 자리를 갖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계소득 감소분이 상쇄됐다.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

정책연구소(EPI)의 하이다 시어홀츠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의 상황은 견조하지만 의미있는 임금 상승을 이끌어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분석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가계소득 통계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선거 캠페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 성장의 이익을 대부분 부자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산층의 임금은 거의 제자리인데 상위 소득자들의 임금은 크게 늘었고 소득 하위 10%의 임금은 오히려 4.5% 감소했다는 것.

정책우선순위연구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재러드 번스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통계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개개의 가구가 나아지는 것 사이의 구조적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s914@news1.kr

무디스, 미 달러 지배적 국제통화 지위 끄떡없다

(로이터=뉴스1) = 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미국 달러화가 중국 위안화 같은 대체 통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미래에 계속해서 지배적인 국제 준비통화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무디스는 미국의 투명한 금융시장과 안정성,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등은 미국 달러화의 안전 도피처 전통을 강화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의 글로벌 지위가 다른 통화에 의해 도전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년이 걸릴 듯하다고 무디스는 밝혔다.

달러에 대한 잠재적 도전자인 유로화에 대한 미래 수요와 관련, 무디스는 유로존 제도의 강건성과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위안화에 대해서는 "중국과 여타 국가들 사이의 연결이 높아짐에 따

라 교역의 매개수단으로서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만 예상했다.

국제 준비통화 지위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중국의 자본계정 추가 개방과 관련해 무디스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사무총장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취지: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미국 동포사회의 정치권의 신장과 한인 2세들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연례사업: 1) 협회지널 발행 2) 정치인턴 프로그램 육성 및 모금행사 3) 차세대 리더 캠퍼런스 4) 시민권취득 워크샵, 그리고 기타행사로 유권자등록과 투표권유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열정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단체명: 뉴 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주소: 160 Main St. Stoneham MA 02180
홈페이지: www.kacl-ne.org
전화번호: (617)799-7033
이메일: newenglandkacl@gmail.com

모집직종: 사무총장
자격조건: 1) 영주권, 시민권자, 혹은 미국내 취업 가능자
2) 이중언어 (Primary: 영어, Secondary: 한국어)
3) 기본적인 컴퓨터 능숙

급여: \$5,000/월, 지급시점과 형식은 추후 협의
근무시간: 협회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이며, 재택근무 가능
근무소임: 협회 임원과 추후 논의

지원방법:
관심있으신 분은 일차적으로 시민협회 이메일
newenglandkacl@gmail.com로 이력서를
2018년 9월30일까지 보내시고,
시민협회가 신청인에게 바로 개별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우드워드 <공포> 벌써 9쇄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판매동력

출판사 11만5000부 발간, 16개국서 동시 판매 캐나다·영국 등지에서도 온라인판매 1위 차지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위더 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가 매우 빠른 시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출간 전부터 주요 내용이 보도되면서 워싱턴을 온통 뒤흔들었던 이 책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판매되기 시작했고, 반즈앤노블은 "2015년 7월 하퍼 리의 소설 '파수꾼'(Go Set a Watchman) 때보다 빠른 속도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CNN은 '공포'의 판매 속도를 두고 하나의 '현상'과도 같다고 표현했다.

이 책의 출판사인 사이먼 & 슈스

터는 현재까지 75만부 이상이 팔렸다고 발표했고 조너선 카프 대표 역시 '문화적 현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카프 대표는 "출간 전부터 수많은 관심이 이어졌고 대중은 우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역사적인 중대한 시점'(a pivot point in history)란 것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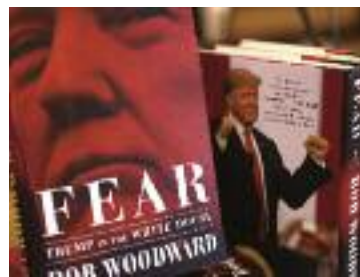
책은 벌써 9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11만5000부가 발간되는 것이다.

CNN은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우려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출간 전부터 밝혀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

고 비난 등이 판매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공포'는 해외에서도 잘 판매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 독일에선 온라인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먼 & 슈스터는 16개국에서 '공포'가 동시에 판매됐다고 밝혔다.

s914@news1.kr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미국, 다시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 됐다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12일 미국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

CNN머니에 따르면 EIA는 이날 발간한 '단기 에너지 전망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미국 원유생산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며 1973년 이래 처음으로 최대 원유생산국 자리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2월 20여년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질렀고 8월엔 하루 평균 1090만 배럴을 생산하며 러시아를 추월했다. 러시아는 하루 평균 1080만 배럴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IA는 "셰일오일을 추출하는 수압 파쇄법(hydraulic fracturing)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급증했다"며 텍사스에서 시작된 셰일

오일 붐이 세계 에너지 지형을 재편했다고 분석했다.

EIA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적어도 2019년까지는 최대 산유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sy@news1.kr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인근의 석유 시추 시설



테슬라 또 주요임원 퇴사 재무 부사장도 떠났다

상폐 논란·CEO 기행에 혼란 가중 올들어 41명 회사 나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6분기 연속 적자에 시달리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서 또 한 명의 경영진이 회사를 떠난다. 올들어 42명째 퇴사자다.

CNN은 테슬라 저스틴 맥어니언 전 세계 재무 담당 부사장이 다음 달 7일까지만 근무하게 됐다고 12일 보도했다.

맥어니언 부사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기 위해 퇴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테슬라에서 근무한 시간을 정말 사랑하며, 동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존중하지만, CFO 직은 포기할 수 없는 기회"라고 말했다.

맥어니언 부사장이 퇴사 의사를 밝힌 건 지난주 데이브 모턴 테슬라 회계책임자가 사임한 지 사흘만이다.

모턴 회계책임자는 "입사 후 회사에 쏟아지는 대중들의 관심은 상상이었다"며 합류 한 달 만에 사임했다.

잇단 경영진의 이탈에도 테슬라는 지난 1년간 이사급 이상의 감원율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테슬라는 혼란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기업 안정성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이상행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머스크 CEO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위스키를 즐락이며 마리화나를 피우자 다음날 주가가 10% 가까이 내려앉기도 했다.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 테슬라는 현금 고갈 우려 속에 수익을 늘리고 전기차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주주들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angela0204@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함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90일만에 침묵 깬 김명수, 검 수사 협조 강조 · 개혁의지 재확인

사법농단 영장 줄기각에 "일선법관 재판 관여못해" "사법발전위 제안 전폭 수용"...행정처 전면개혁 추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 침묵을 깨고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수사 협조를 공언한 뒤 90일만의 재확인이다.

그간 의심받아온 사법개혁을 향한 의지는 거듭 강조했다. 개혁 대상인 사법부의 '셀프 개혁'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비판을 감안해 외부 기관이나 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사법개혁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수사 속 사법부 70들을 맞은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매우 참담하다"며 "통렬한 반성"과 "깊은 사과"부터 꺼내들었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 사법농단 사태에서 부실 대처로 리더십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지난 6월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도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예산전용에 더해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통상의 발부율인 90%에 육박하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데도 별다른 조처가 없어 비판여론이 고조돼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다시금 "현 시점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으로 일선 법관 재판엔 관여할 수 없다"고 협조의 범위를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 또는 재판에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줄 것으로 믿는

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영장발부 여부를 지적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법원의 영장 심사나 자료 제출 등을 언급하면 또 다른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도 그간 영장발부는 일선 법원 영장전담 판사의 독립된 권한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다.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 사법개혁에 대한 신속한 방안 마련도 다짐했다.

특히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지난 3월 출범시킨 사법발전위원회가 그간 내놓은 제안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직 외부 개방, 법관인사 이원화 완성 및 사법행정 구



김명수 대법원장

조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도 검토하겠다"면서 "사법부 내의 사법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해 국회에 설명했다는 '법원개혁 입법과제' 자료가 국민적 공론화 등도 거치지 않고 만든 셀프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점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앞서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법원개혁 추진기구는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법관 승진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장 이원화 선출 등 김 대법원장이 주된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법관 인사제도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행정처 '폐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smith@news1.kr

대법 기밀문건 유출 전직 수석재판연구원 9일 검소환

압수수색서 재판보고서 등 발견...통진당 문건도 받아 추가영장 기각후 檢 고발요청...대법 회수 검토

(서울=뉴스1) 서미선, 이유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취득한 대법원 기밀문건을 퇴임 후 사적으로 보관한 유모 변호사(52·사법연수원 29기)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일 오전 10시 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주말 검찰은 유 변호사를 불러 사전 면담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수석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있을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면담에서 유 변호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양승태 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6년 6월8일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대한 의견(대외비)' 문건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실제 대법관들에게 보고됐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이 문건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되돌려달라고 낸 행정소송 상고심을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검토하

는 내용으로, 판결 결과에 따른 장단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영장을 발부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 특허소송 관련 정보 보고서 확보를 위해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PC에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 문건으로 의심되는 파일이 다량 발견됐다.

검찰은 이 문건들을 유 변호사가 연구원으로 근무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다른 대법원의 재판 검토 문건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직 선고 전인 사건도 다수 포함돼있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한다.

전직 고위법관이 재직 시절 다른 기밀사항을 퇴직 후 외부로 반출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당일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 해당 문건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청했지만 유 변호사는 영장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 변호사가 보관한 문건 1건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이른바 '핀셋' 발부받아 동의 없는 문건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해당 문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밀자료 유출 관련 수사를 위해 같은 날 대법원에 고발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이미 인지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법원행정처, 대법원이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보유 여부를 확인 뒤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변호사를 불러 재판 관련 보고서를 만든 경위와 임 전 차장 등 뒷선 관여,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행정처가 2016년 3월 22일 작성한 '○○신문 기사 초안'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법조인들 반응을 기사체 형식으로 작성한 글인데, 해당 언론사는 행정처가 써준 이 '기획기사'를 별다른 수정없이 보도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당시 고영한 대법관이 임 전 차장에게 지시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작성한 판사와 관련 기자 등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행정처가 구독료를 늘리는 등 보도 대가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smith@news1.kr

여 법사위원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촉구

(서울=뉴스1) 박기호, 구교운, 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해소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춘석·송기현·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조응천·표창원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려는 제도적 보장인데 사법권 독립은 수단일 뿐 그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로부터 이 같은 뜻을 전해받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들이 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며 "당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SEP. 14 - SEP. 20, 2018

CREAMY BULGOGI PASTA    Follow us @hmartofficial
 ENJOY THIS KOREAN TWIST TO BORING PASTA. CREAMY, MEATY PASTA IS HERE!
 H마트와 함께 만드는 맛있는 퓨전 음식! 버섯 가득 크림 파스타에
 우리 입맛에 꼭 맞는 불고기를 더한 환상의 조화를 만나보세요.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ESTAURANTEU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3식당으로 성공정신을 쉼 없이 다룬 지역 연약주사의 CONTACT: info@hmarteatery.com



- White Nectarine 화이트 네타린 **\$1.99** lb.
- Lotus Root 연근 **\$1.88** lb.
- Black Plum 검정 자두 **\$1.49** lb.
- Packed Garlic पैकाळ 5oz/pkg **2\$3** pkg./for
- NEW CROP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99** lb.
- Ginger 생강 **\$1.49** lb.
- White Peach 백도 **\$1.99** lb.
- NEW CROP Korean Wonhwang Pear is now in stock! 한국산 햇 원황배 입학! **\$16.99** 1/2 box
- LAGO BRAND Niabell Grape 니아벨 포도 **\$16.99** 1/2 box
- Red Plum 빨간 자두 **\$1.4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Boneless Beef Strip Loin Steak** 재골 스테이크 **\$16.99** lb.
- Bone-in Beef Hindshank** 뼈있는 아롱사태 **\$4.99** lb.
- Beef Tenderloin (Whole Piece)** 소안심 **\$7.99** lb.
- Boneless Pork Loin Chop** 등심 족발 **\$4.99** lb.
-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 냉동 돼지 불고기 **\$5.99** lb.
- Marinated Sliced Beef Ribeye Bulgog** 양념 소불고기 **\$6.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KYOU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 **\$9.99**
- CJ Cooked White Rice** CJ 찰밥 박스 7.5oz x 12pk box **\$12.99**
- KWANGGI Green Tea Seasoned Layer** Original Flavor - 0.17oz x 100ct box **\$10.99**
- HORNEL FOODS Spam 스팸** 48 x 4.5oz/12oz **2\$5**

2018년 한마루 고국통신한매 추석 선물세트

최대 35% 할인/9월 30일까지
 풍요로운 추석, 당신의 고향은 마음을 H마트가 한국에 전달해드립니다.

전화주문: 1-800-648-0980
 인터넷주문: www.hmart.com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TONGTONGBAY Premium Yellow Croaker** 2.5 lb./1.2kg 통통배 명동굴비 **\$14.99** (FR/SAT/SUN ONLY 14/15/16 ONLY)
- TONGTONGBAY Half Cut Crab** 통통배 절단꽃게 1.5 lb./0.7kg **\$6.99** (FR/SAT/SUN ONLY 14/15/16 ONLY)
- TONGTONGBAY Oyster** 3oz./90g 통통배 냉동굴 **2\$6** (FR/SAT/SUN ONLY 14/15/16 ONLY)
- TONGTONGBAY Dried Pollock Cut** 통통배 절단코다리 2.5 lb./1.1kg **\$6.99** (FR/SAT/SUN ONLY 14/15/16 ONLY)
-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차연산 홍새우 **\$6.99** lb. (FR/SAT/SUN ONLY 14/15/16 ONLY)
- Mullet** 송어 **\$1.99** lb. (FR/SAT/SUN ONLY 14/15/16 ONLY)

- TAMAKI Gold Premium Short Grain** 타마키 골드 쌀 15 lb. **\$23.99**
- AJINOMOTO Ramen** 미시노모도 라멘 Tonkotsu/Miso - 3.1-11.5oz **\$4.99**
- SAVE PLUS Seasoned Pollock Roe** 에이브 통러스 얼린생선 1 lb. **\$12.99**
- SAM-HAK Rice Cake** 삼학 식육떡볶이떡 12oz - 2 lb. **\$4.99**
- K TOWN Assorted Fish Cakes w/ Soup Base** 케이타운 부산 어묵탕 14.7oz **\$3.99**
- BEKSUL Korean Frying Mix/Pancake Mix** 백설 튀김가루/부침가루 2.2 lb. **\$1.99**
- HANO RE-LIFE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4.99**
- HARTAI Aola Cracker** 해태 메이스 12.5oz **2\$7**
- 19 TEN FOODS 12 Grain Crisp Pot** 12곡 크리스프 팥 48 packets/ 1.25oz **\$1.99**
- SAMANCO BINGGRAE Samanco Ice Cream Sandwich** 빙그레 통어 사만코 Original Green Tea - 200ct All Year/Box 1.2 **\$3.99**
- DALNICO Drink** 달니코 음료 All Year/Box 1.2 **\$3.99**
- KOTO SMART Multi-Pressure Cooker** 코토 스마트 압력 쿠키기 5.5qt/5.5L **\$89.99**
- KOTO 3-Tier Steamer** 코토 3단 전기 찜기 5.5qt/5.5L **\$24.99**
- Helen City White Tissue** 헬렌시티 티슈 3pk/roll **\$6.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typo.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FR/SAT/SUN ONLY) H-MART BURLINGTON STORE: 3-04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0293 / STORE: 10:3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3주택 ·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고 3.2% 증가 · 과표 3~6억 신설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넘은 최고 3.2%로 증가한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도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한다. 이는 참여정부 종부세를 최고세율인 3.0%를 넘는 수치다.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최대 3.2%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p 인상한다.

앞서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 구간은 0.1~0.5%p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이밖에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ul@news1.kr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관계부처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두환 측 회고록 판결에 판결문 보고 항소 검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등 재판부의 판단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헬기사격 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물론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형사재판에서 살펴볼 증거가 많은데도 민사 재판 선고가

빨리 내려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이날 오전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당사자들의 변명적 주장이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면서 5월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

다고 판시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삭제한 채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소송의 내용이 비슷하다며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junwon@news1.kr



BAB KOREAN BISTRO Brookline OPEN

보스톤에서 만나보시기 어려웠던 **한식 메뉴**와 뉴욕에서도 인정받은 **중화 요리**를 이제 보스톤에서 즐기세요.

대하짬과 보양전골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수 있습니다.

짜장면, 볶음짬뽕, 사천탕수육, 돼지순대국밥, 순대곱창전골, 수제 만두, 냉면



MON - THU 11:30 - 10:00
FRI & SAT 11:30 - 10:30
SUN 11:00 - 9:00

TEL 617.383.5575
FAX 617.505.6458

1374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직접 만든 육수가 일품인 냉면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보스톤 서쪽, 새기게, 좋은 위치. 연매상 32만불 이상
플랜트 + 드롭오프 스토어
Asking \$160,000

Business NEW

네일샵 매매
보스톤 북쪽, 3760 스퀘어피트, 새로 단장된 가게
Asking \$490,000

Residential NEW

주거 렌트
에버렛에 위치, 1,700 Sq. Ft. 넓은 주차공간 보스톤과 인접한 위치
월 렌트 \$2,400

Commercial NEW

커머셜 리스
369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Plaza 에 Dunkin Donuts 입주. Lots of foot traffic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NEW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NEW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NEW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NEW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299,000

Business NEW

드롭오프 스토어 매매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Asking \$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매매
Shrewsbury Full Plant 세탁소 White City Mall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Lots of foot traffic 안정된 수입
Asking \$399,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물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Price Reduced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9,000

Business Price Reduced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들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NEW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NEW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Price Reduced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Price Reduced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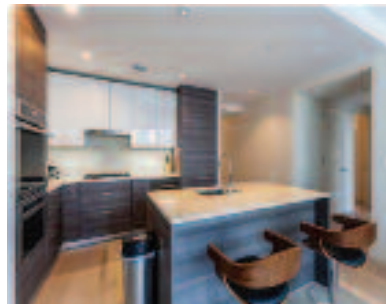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7 Lilac Court, Acton, MA
Asking price: \$420,000
Listing Agent: Jenn Harloon
Phone: 508.331.2092



Just listed: Condominium
1 Franklin St. Unit 1205
Boston, MA 02110
Asking price: \$1,725,000
Listing Agent: Clara Paik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Frank Mcmanus
317.690.6187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84 Wellesley Road
Belmont, MA
Asking price: \$2,800,000
Listing Agent: Frank Mcmanus



Just listed: Single family
292 Mendon Road
Sut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Single family
160 Clinton Street
Hopkinton, MA
Asking price: \$589,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Multifamily
23 Everett St.
Boston, MA 02128
Asking price: \$8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人

슴 (합)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I and the Father are one. - 요한복음 10:29, 30.

남·북한이 UN에 공동제출한 '판문점 선언' 영문 본(本)은 최초 공개된 한글원본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에 제출된 번역본에는 '남·북한이 올해 안에 종전 선언에 합의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이 영문 번역을 거치면서 원(原) 뜻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해석한 영문에는 총 3개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합의안 대체', '3자 혹은 4자 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나란히 나열됐다.

3자 혹은 4자 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판문점 원문(原文)은 남북 두 정상이 '올해 종전선언을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바뀐채 조태열 UN 주재 한국대사와 김인홍 북한대리대사의 공동성명을 거쳐 UN총회와 UN안보리에 동시에 회담됐다.

파란하크 UN사무총장 대리인은 원문내용과 달라진 판문점 선언이 제출된데 대한 VOA(미국의 소리 방송)의 논평 요청에 "서로 다른 문구에 대해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 "UN은 회담요청이 들어온 문건을 그대로 배포했다"고.

UN주재 한국대표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했지만 11일엔 "한국 외교부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넘겼다.

이에 대해 이성윤 교수(Tufts 대학)는 "그냥 행정적 오류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미 청와대에서 내놓은 영문본이 있는데 남과 북이 이렇게 공조를 하면서 다른 뜻에 다른 내용이 담겨있는 걸 UN에 제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교수는 최초로 채택된 4·27 판

문점 선언' 문구(文句)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남북이 올해 종전선언을 선언하겠다는 식으로 해석 될 여지를 남겨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했다.

문제는 청와대의 영문 번역본이 이런 오해(誤解)를 해소하고 있는데도 이를 UN에 제출하지 않는 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서울의 학계여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집착하는 이유가 남북이 정전협정을 하면 경의선(京義線) 철도 복축기간 공동조사가 UN군사령부의 승인거부로 무산됐는데 이것이 필요없게된다면 법리적으로 정전협정 폐기와 UN사 해체 문제는 별도사안으로 치더라도 정전협정 폐기만으로도 UN사 해체 될 성질은 결코 아니다"라지만 "UN사 해체, NLL 무효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작점이 정전협상이고 다음은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상으로 가려고...

남·북한이 지난 6일 공동으로 제출한 판문점 선언은 '연내 종전선언' 합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11일 공개된 이 문서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와 더불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관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 개최를 적극추진하기로 합의(合意)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모두 두개의 합의가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올해 종전선언(終戰宣言)을 하기로 했

다는 약속이다.

실제로 문재인 한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한글원문에는 이 문구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美) 3자 또는 남·북·미·중(中) 4자 회담 개최를 적극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되어 있어서다.

연내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그리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혹은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까지 총 3개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종전(終戰)을 연내 선언하기로 '합의'한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위해 다자(多者) 회담을 '추진'중이라는 게 원래 뜻이란 사실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영문 번역본에도 나타났다.

지난 6월 청와대가 발행한 남북정상 회담 결과집 p28. "South and North Korea will actively cooperate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ringing an end to the current unnatural state of armistice and establishing a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historical mission that must not be delayed any further. 남북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적극적으로 건립할 것이다. 현재 비합리적인 과제를 끝내는 역사적인 사명은 더 지체할 수 없다."

북한이 UN에 제출한 서류는 조선중앙통신이 번역은 "The North and South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ccord and actively promote the holding of North-South-U.S., tripartite or North-South-China-U.S., four-party talks for the building of durable and lasting peace mechanism." 1.연내 종전 선언하기로 합의 2.정전협정을 평화합의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 3.지속가능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혹은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UN에 공식제출한 번역문: "The two side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actively promote the holding of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wo s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1.연내 종전 선언하기로 합의 2.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4자 회담개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출한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남한보다 더 깊고 이해가 확실하다고...

슴은 人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一) 말씀(口)이 있어 하나님 뜻(旨)과 和: 합할 갑, 합할 합(合) 두가지 뜻을 품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진 '천국 입국 자격 자란 뜻' 이슴이 없으면 인생 헛사는 것. "내 삶" 속에 슴을 받을 고난을 겪고 있는지... 사람들은 '시험(試驗)'이라며 피하는데...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2 family house, Newton 투자나 거주에 적합 4 Pearl-Peabody St.</p> <p>ASKING \$1,490,000</p>	 <p>2 family house, Newton good for investment 48-50 Lexington St.</p> <p>ASKING \$1,250,000</p>	 <p>북부 Boston의 성업중인 Drop Shop을 원하십니까? 단돈 \$50,000</p> <p>ASKING \$5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p>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p> <p>ASKING \$160,000</p>	 <p>로드아일랜드 "뉴-포트 맨손" 관광지역 한 복판에 성업중인 스시 식당</p> <p>ASKING \$100,000</p>





Anna Jung
617.780.1675






Sung Bin Oh
978.505.3736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Allston, Brighton 한국 식당</p> <p>ASKING \$168,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Korean BBQ • Korean Buffet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치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안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회선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대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t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978-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선한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엘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룬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머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준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우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미용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그레스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텝	617-787-1735
헤어 크린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치혜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엔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맥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캠브리지덴탈	617-492-8210
캐논리퍼니튜어스	617-871-1482
퀸지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케이비로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온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롱치	978-263-4592

기타

메모리클럽(병리)	203-330-8080
문허어림 보정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
-------	------------

내 친구 미스터 캥?

지인 중에 Mr. Kang이란 사람이 있다.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그를 “미스터 캥”이라 발음하는 통에 고민이라고 했다. ‘방’ 씨도 영어로 Bang으로 쓰면 당연히 “뱅”이라 발음할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물어보는 세심한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 필자도 Pak이란 분을 만나서 순간적으로 “백” 씨인지 “박” 씨인지 헷갈려서 물어본 적이 있다.

한인에게 철자 “a”는 [아] 발음을 대변한다. 철자 “a” 외에도 “e, I, o, u”는 자동적으로 [에, 이, 오, 우]를 대변한다. 그래서 tomato는 [토마토]로, Washington은 [와싱턴]으로 발음하는 것이 편하다. 미국인이라면? 미국인에게 철자 “a”는 기본적으로 /æ/ 즉 /애/를 대변한다. 그래서 can, van, lan, pan, man에서 철자 “a”는 모두 [애]로 발음된다. 뿐만 아니라 apple은 [애플]이 아니라 [애플]로 발음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론 영국영어나 호주영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영국의 동부해안과

호주에서는 철자 “a”가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내뿜는 소리인 [아]에 가깝다. 그래서 fast는 [fast], past는 [past]로 발음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영어는 보수적이고 옛날 영국영어를 유지하고 있다면, 영국영어는 진보적이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철자 “a”가 /a/, 즉 /아/ 발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우리말 “강”을 로마자 Kang이라 쓰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다. 어떤 사람은 Kahng으로 쓰기도 하는데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Kang을 [캥]으로 발음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캥]이 아니고 [강]이라고 말해주는 수밖에 없다. 귀찮아도 할 수 없다. 어차피 표기법은 제 아무리 훌륭해도 남의 나라 언어까지 완벽하게 표기할 수는 없다.

이쯤 되면 아무래도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소리 중 하나가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자에 대해 너무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한글이 자랑스럽다. UCLA의 교수이자 저명한

저술가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역시 한글이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하다고 예찬한 적이 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조합 방식이 매우 과학적이다. 이러한 장점은 이미 스마트폰에서의 타자 속도에서 증명된 바 있다. 그렇지만 한글에 대해 쏟아진 모든 찬사들에 동의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한글이 과학적이어서 적지 못하는 소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 말이다. 당장 fish라는 단어를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겠는가? 없다. 한글은 그냥 한국어를 적기에 편하고, 로마자는 영어를 적기에 편할 뿐이다.

필자의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갈 무렵이었다. 텔레비전에서 Paav란 텔레비전 광고가 자주 나왔다. 필자는 당연히 이것이 [파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패브]라고 하는 것이었다. 명색이 영어선생인 필자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영어식이라면 paav는 분명 /pæv/ 즉 [패브]로 발음되어야 한다. 그런데 뻥속까지 한국인인 필자는 조금만 긴장을 풀면 철자 “a”는 [아]를 나타낸다는 한국식 사고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판문점을 Panmunjeom이라고 쓰면 미

국인들은 어떻게 읽을까? 당연히 [판문점]이라 발음할 것이다. 자기들끼리야 뭐라고 발음하던 상관없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인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 발음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 철자 “a”는 /아/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상 [애]라는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철자 ae를 쓴다. 동대문을 dongdaemun이라 쓰는 식이다. 철자 ae는 분명 영어식은 아니다. 오죽하면 필자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sundae가 “순대”인줄 알고 얼마나 놀랐겠는가? 독특한 철자이긴 하다.

여기서 또 하나 말을 잇자면 철자 “u”의 발음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철자 “u”는 /우/ 발음을 대변할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U/ 즉 /어/음을 대변한다. 그 결과 dongdaemun은 기대와는 달리 [동대먼]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지 않은가? sun, run, fun, gun, nun에서 철자 “u”는 모두 /어/로 발음되니까. Jungang Ilbo 기대와는 달리 [정앵일보]로 발음될 소지가 농후하다. 그래서인지 중앙일보는 Joongang Ilbo로 쓴다.

보스톤 국제선 셸터 모금 골프 대회

NAICFM-Boston Fundraiser Golf Tournament Shelter for Peace House

올해는 건디기 힘들도록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이었지만 벌써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문턱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면 분명히 추운 겨울이 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없는 사람들은 더 춥고 더 배가 고플거라는 염려속에서 우리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절실한 마음에서 올가을 처음으로 국제선에서 셸터모금 골프대회로 모금하여 힘들고 집없는 이민자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성원 부탁 드리면서 알밤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모금 골프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즐거운 골프개임을 즐기시며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시며 보람된 교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초대드립니다.

국제선 임원 일동



SATURDAY, OCTOBER 13, 2018 AT 12:30 PM

Merrimack Country Golf Club : 210 Howe St. Methuen, MA 01844

\$120.00 Per Golfer Golf Package Includes:

- Golf Carts
- Lunch & Drink
- Dinner @ Merrimack golf club house function hall
- Awards/Raffle/ Auction Items

Check Payable to :NAICFM-BOSTON
Mail to : 70 Howe St. Methuen, MA 01844
Contact: 978-828-1383 Insook Vallario
or Bob Campbell 978-833-0065
Join celebration Dinner for \$40.00

성안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Nazarene Parish of Central District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 26일(수) 8pm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of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HAPPY
해피돌상

고용권 전통상 대어 (비양산, 등미)
한국 최대의 전국적인 전통상 거점상가인,
오송장 내 버크셔 헤서웨이 매장 (4989)에서
저렴하고 푸짐하게!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지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지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추석맞이 대세일

안마의자 전문 기술자가 꼼꼼하게 분석하여 확실한 제품들만 권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안마의자 전문 기술자 상시대기
5년간 개런티 + 자체 제작 고급 PAD (\$150 상당) 무료제공

파나소닉 MA70 특별세일!

하루 카피한 값으로 고급 안마의자를 구입하세요!
\$2.9
Reg \$7,000 - \$81/월 60개월 + Tax

선착순 30대



미 최대 규모 명품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사랑하는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INADA DREAMWAVE
\$250 /월 36개월 + Tax

INADA DREAMWAVE
106개 에어백으로 혈관을 자극해 몸에 쌓인 노폐물을 풀어주고, 노인성 질환, 당뇨병자에게 특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PANASONIC MAJ7
\$167 /월 60개월 + Tax

PANASONIC MAJ7
3명의 프로 안마사가 동시에 156가지 기술을 발휘, 단순한 롤러가 아닌 마사지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한 강력한 안마의자

INADA NEST
\$125 /월 46개월 + Tax

INADA FLEX 3S
\$125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73
\$142 /월 46개월 + Tax

OREST OS 5000
\$114 /월 46개월 + Tax

PANASONIC 30007
\$100 /월 36개월 + Tax

POSITIVE POSTURE BRIO
\$104 /월 48개월 + Tax

OSAKI OS Pro Maestro
\$152 /월 36개월 + Tax

FUJIIRYOKI FJ 7900
\$148 /월 36개월 + Tax

COZZIA CZ 710 Qi SE
\$166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10
\$83 /월 24개월 + Tax

60년 전통의 미태리 명품 침대 매그니플렉스

목디스크·허리디스크 및 각종 통증에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침실문화의 혁명 모션베드 출시!

magniflex

어떤상황에서도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인체공학 의자 **미동체어**

사람을 중심으로 의자를 만든다!

미동체어의 기술은 정해진 앉아 있는 자세를 획상하게 자세를 유도/제어합니다. 슬리핑 기능을 활용하여 척추를 건강하게 하고, 바른자세를 잡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Wing Mechanism**: 정해진 자세를 유지할 때, 어깨와 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슬리핑 기능을 활용하여 척추를 건강하게 하고, 바른자세를 잡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Sliding Mechanism**: 정해진 자세를 유지할 때, 허리와 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슬리핑 기능을 활용하여 척추를 건강하게 하고, 바른자세를 잡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동체어 입하 Special Price \$890 **\$599**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	---	---	--	---	---

'명당, 조승우x지성, 치열하게 빛은 '인생호흡'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명당'에서 '명연기'가났다. 영화 '명당'(감독 박희곤)에서 단연 빛나는 이들은 투투 주연 활약을 펼친 배우 조승우와 지성이다. '명당'은 126분간의 러닝타임 동안 추석 관객들을 위한 상업영화로서 미덕을 다한다. 흥선대원군이 지관의 조언을 받아 2명의 왕이 나오는 뒷자리로 남연군의 묘를 이장했다는 실제 역사적 팩트 위에 기반한 영화적 재미를 충실히 선보이고, 서사의 기승전결에 따라 점차 관객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리며 씩 관촬은 만들새로 만족할만한 감상을 안긴다.

무엇보다 126분간 관객들이 마주하는, '명당'의 가장 큰 묘미는 배우들의 스크린을 압도하는 연기다. 조승우는 땅의 기운을 읽어 운명을 바꾸려는 천재 지관 박재상으로, 지성은 땅으로 왕을 만들려는 몰락한 왕족 흥선으로 각각 등장한다. 박재상은 장동 김씨 가문의 계획을 막은 보복으로 가족을 잃고 13년 후 흥선에게 왕실의 권위를 뒤흔드는 세도가를 몰아내자는 제안을 받는다. 이후 박재상은 흥선이 천하명당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자신과 다른 뜻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갈등하기 시작한다.

조승우와 지성 모두 빈틈 없는 치열한 열연으로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두 사람의 시너지는 러닝타임 내내 돋보인다. 온화하고 올곧은 성품의 캐릭터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보여준 조승우, 점층적으로 분노와 욕망을 표출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보여준 지성이 이뤄낸 케미는 영화를 추동하는 힘이다. 두 배우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연기 진동은 후반부로 갈수록 증폭도 커진다. 클로즈업으로 방점을 찍은 극적인 순간은 감정의 밀도를 쌓아온 연기 내공과 영화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 영화로 지성은 또 한번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드라마 '킬미, 힐미'와 '피고인'으로 연기대상까지 수상하며 안방극장에서는 연기력과 흥행력 모두 인정받아온 지성이었지만 영화에서의 활약은 비교적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명당'에서 가장 감정의 진폭이 큰 흥선을 자신만의 캐릭터로 완성했다는 호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개봉한 영화 '좋은친구들' 이후 약 4년 만에, 향후 스크린에서의 활약 또한 기대해볼만한 배우로 한단계 올라설 전망이다.

조승우, 지성이 최전방에서 활약했



다면 김성균과 백윤식, 유재명, 박충선 등 배우들의 합 또한 주연배우의 시너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김성균과 백윤식은 땅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조선 최고 세도가 집안의 김병기, 김좌근 부자로 긴장감을 조성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명당'에 유쾌한 웃음을 불어넣은 이는 유재명이다. 드라마 '비밀의 숲'과 '라이프'에 이어 조승우와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그는 의외의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내며 유행 지수를 높였다. 오는 19일 개봉.

aluemchang@news1.kr



'라이프' 묵직한 결말... 5.6% 자체 최고로 종영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의학드라마 '라이프'가 마지막까지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시청률 역시 자체 최고 시청률인 6.8%까지 치솟으며 유종의미를 거뒀다.

11일 종영한 JTBC 월화드라마 '라이프(Life)'(극본 이수연/연출 홍종찬 임현욱) 최종회 시청률이 전국 기준 5.6%, 수도권 기준 6.8%(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뜨거운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이는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라이프'는 마지막까지 입체적인 갈등으로 차원이 다른 긴장

감을 선사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상국대학병원의 최전선을 지키려던 의료진의 결정적인 수와 구승효의 협상력은 가까스로 민영화의 바람을 막아냈다. 끝내 화정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독립재단이라는 대안을 두고 또다시 대립하는 의료진의 모습조차 현실적이었다. 완벽하지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일관된 현실적인 결과는 차원이 다른 의학드라마의 포문을 열었던 '라이프'다운 품격있는 결말이었다.

ichi@news1.kr

9월 16일 - 9월 2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감사하는 마음으로</p> <p>●운수:생각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금전:경제적인 여건이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상외의 수입으로 은행잔고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정:불만의 마음을 갖기 전에 상대를 폭 넓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역시 이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8, 21일 길일. 17, 20일 주의.</p>	<p>소띠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p> <p>●운수: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불필요하고 뇌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자신의 분야 밖의 일은 관여하지 않도록 하세요. 소득도 없이 피곤할 뿐입니다. ●애정: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없거나 사랑에 성의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포기하도록 하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16, 22일 길일. 17, 21일 주의.</p>	<p>범띠 자기계발을 해야</p> <p>●운수:자기계발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금전:피땀 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수입 면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되겠습니다. ●애정:용기내서 일단 만나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그동안 불편했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0, 21일 길일. 16, 22일 주의.</p>
<p>토끼띠 돌 하나에 새 두 마리가 잡히는</p> <p>●운수:즐거움 마음으로 일하는 태도가 행운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봉어를 낚으려다가 잉어를 잡고 돌 하나에 새 두 마리가 잡히는 격인 운세입니다. 우연치 않게 기대 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6, 19일 길일. 17, 21일 주의.</p>	<p>용띠 인내하고 양보하면서</p> <p>●운수:편하게 실 틈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금전: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애정:서로가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7, 19일 길일. 16, 18일 주의.</p>	<p>뱀띠 현재의 흐름을 유지하고</p> <p>●운수:주변상황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실수도 하지 않게 됩니다. ●금전:현재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이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애정:수상쩍은 기미가 느껴집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결론을 낼 것인지 힘들어도 받아들이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p>말띠 솔직하게 표현을</p> <p>●운수: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평소 보이지 않던 관심과 배려는 원활한 인간관계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착실하게 모아서 크게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애정:누구를 좋아하면서도 아직은 마음속에만 간직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양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p> <p>●운수:뉘든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뒤에 가서 크게 후회할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적은 이익을 탐내다가는 도리어 손해 보기 쉽습니다. ●애정: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관계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6, 20일 길일. 17, 18일 주의.</p>	<p>원숭이띠 제삼자를 통하도록</p> <p>●운수: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금전:일을 해결하려면 제삼자를 통하도록 하세요. 독단적으로는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 늦어지게 됩니다. ●애정: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만 생각을 하거나 상대의 못마땅한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닭띠 있는 그대로 보아야</p> <p>●운수: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전:크고 대범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금전운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애정:남몰래 좋아하면서 표현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상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용기 내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개띠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p> <p>●운수: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시도해야 합니다. ●금전:재산은 모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절박하는 습관을 틀어막으세요. ●애정:상대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지 못하고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자상하게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이쁜 곳은 어루만져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9,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돼지띠 폭풍이 치다가 곧 해가 나는</p> <p>●운수:참을성이 부족해지고 회로애락의 감정이 자주 변하는 때입니다. 일에 싫증을 잘 느끼고 환경의 변화를 원하게 됩니다. ●금전:유화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손해 보게 될 뿐입니다. ●애정:마치 강한 비바람과 폭풍이 치다가 그치고 곧 해가 나는 것과 같군요. 불같이 화를 내지만 금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리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0일 길일. 19, 22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toneham에 있는 세탁소에서 화, 토요일 딜리버리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T. 781-530-6532 (Tim)

알링턴 미스터 스시에서 파트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T. 781-308-2073

신서유기5, "일요일로 편성 변경, 오는 30일 첫방"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tvN '신서유기5'가 베일을 벗었다.

tvN를 대표하는 역대급 병맛 시리즈 '신서유기'가 1년 여 만에 시즌 5로 돌아온다. 일요일로 편성을 바꿔 오는 30일 오후 10시40분에 처음 방송되는 것. 이번 '신서유기5'는 이전보다도 업그레이드된 개그와 게임들로 역대급 웃음을 사냥할 준비를 갖췄다.

특히 10일 공개된 '신서유기5' 예고에서는 '신서유기' 시리즈만의 특징이 물씬 묻어나는 모습들이 웃음을 선사한다. 초저화질, 의도를 알 수 없는 카메라 앵글 등 '신서유기' 시리즈를 대표하는 B급 감성을 차례로 소개한 뒤, 최대 제작비와 최고 스케일을 자랑하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될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이번 '신서유기5'는 '(귀)신과 함께'라는 부제를 갖고 진행되는 여름방학 특집. 가오나시, 강시 등 다양한 귀신들로 분장한 멤버들은 이전 시즌보다도 역대급 비주얼을 자랑한다는 후문. 과연 비주얼부터 웃긴 이들이 선사할 웃음 폭탄에 벌써부터 눈길이 쏠린다.

한편 '신서유기5'는 오는 30일 오후 10시40분 처음 방송된다.

breeze52@news1.kr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채용 공고

모집직종: 사무총장

자격조건:

- 1) 영주권, 시민권자, 미국내 취업 가능자
- 2) 이중언어 (Primary: 영어, Secondary: 한국어)
- 3) 기본적인 컴퓨터 능숙

급여: \$5,000/1년, 지급시점과 형식은 추후 협의
근무시간: 협회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 재택 근무 가능

근무소입: 협회 임원과 추후 논의
지원방법: newenglandkac@gmail.com, 2018년 9월30일까지 이력서 접수, 접수 후 개별통보.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라스' 조인성X배성우X박병은X남주혁 입담 폭발...2주 분량 확보 성공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라디오스타' 조인성, 배성우, 박병은, 남주혁이 '꿀게미'를 선보이며 2주 방송 분량을 확보했다.

12일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영화 '안시성' 출연 배우 조인성, 배성우, 박병은, 남주혁이 출연해 다양한 일화를 주제로 입담을 뽐냈다.

조인성은 출연 결심 이유를 묻

는 말에 '태현이 형이랑 친해서 언젠가 한번은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며 "상암 MBC는 처음이다"라고 덧붙혔다. 그 말에 윤종신은 작가들이 다 화장하고 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조인성은 '박병은 형의 컨디션이 초반에 좋기 때문에 빨리 분량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europa@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슬픔을 견디는 방식(8)

은미가 처음 남자를 만났던 그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제라니움 꽃이 소복하게 올라와 있다. 제라니움 잎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넣고 살짝 비비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난다. 그 냄새는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냄새라고 남자가 말했다. 제라니움 잎을 엄지와 검지로 두어 번 비비고 냄새를 맡아 본다. 그때 팔랑! 문 여는 소리 들리고 그가 들어왔다. 남자가 은미를 한참 보다가 처음 만났던 그날 두 개의 테이블 건너편에 앉는다. 그리고는 계속 은미를 바라본다. 은미도 그를 바라본다. 은미가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남자가 은미를 따라 나간다. 둘은 좁은 골목을 두어 발 자국 걷다가 은미가 먼저 돌아선다. 우산을 받고 있을 기운도 없다. 우산을 내린다. 남자가 다가가 은미를 안는다.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한 몸짓 하나로 전류에 감전되듯 상대와 감정이 교류되기도 한다. 꽃힌다. 이 말은 그런 감정을 잘 설명한 말이다. 꽃힌다면 다소 용없이 상대의 표정과 손짓 발짓에 무너진다. 그런 것을 화학 작용이라고 가벼운 말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화학 작용은 그리 가볍지 않다. 모든 예술의 주제는 생로병사에서 비롯되지만 유일하게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큼 광범위하게 감정의 폭을 갖고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한 반에 60명이 넘게 되었던 그

시절의 서울 외곽 의정부, 그곳의 아이들은 거반 그런 삶을 살았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위의 세 오빠들도 나보다 나았다고는 할 수 없다. 모든 옷을 물려받았던 막내 오빠는 한 번도 새 옷을 산 적이 없다고 했다. 큰 오빠는 한 번도 제 몸에 맞는 옷을 산 적이 없다고 했다. 둘째 오빠는 늘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했다고 했다. 이러한 각자의 열등감은 자신의 존재감이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느냐에 따라 따뜻한 추억이 되거나 불행의 전조전이 되거나 한다. 현재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과거의 시간이 갖고 있는 색깔이 달라진다. 유화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 색깔이 다 마를 즈음 다시 덧입혀 색을 칠하면 감쪽같이 지나간 색과 시간이 감춰진다. 그럼에도 과감하게 색깔을 바꿔 칠할 엄두를 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삶의 습관도 관성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열등감을 나이가 들어서도 갖고 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거나 한가? 거의 없다.

사람들의 열등감이란 현재의 피난처로 늘 재생 복구된다. 난 대학을 포기하고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면서 드라마 속에서 내 마음껏 나를 표현했다.

피아노를 갖지 못해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성장기를 거친 피아니스트의 비틀린 사랑,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호텔에서 요리하다가 주방장이랑 연애하다 출세를 위해 배신하는 상투적인 이야기, 할머니 세 명이 노인정에 앉아 도란 도란 나누는 청춘 이야기 등등 꽤나 많다. 나의 열등감은 드라마 속으로 다 흘러 들어갔다. 사람들이 말하는 막장 드라마도 서슴지 않고 썼다. 내 나름대로 사람의 모든 감정을 존중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가 매번 좋은 건 아니었다. 나는 열등감이 남아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몹시 짜증나고 불편하다. 아니 열등감이 있는 것을 까발려 보여 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낯다. 열등감을 그럴듯한 언어를 빌려다 포장하는 사람과 만나면 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해진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대화가 불가능하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사람의 90%는 그 감정에서 벗어난 사람이니 오히려 대화가 상쾌하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휩싸여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살다가 오십이 훌쩍 넘은 어느 날,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란다. 서른의 고비, 마흔의 고비는 비교도 되지 않게 몰락하고있는 몸뚱어리를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 남자나 여자나 그 시기가 되면 자신이 갖고 있던 열등감도 역동적인 젊음이 내뿜는 감정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 많은 것을 놓아주어야 하는 오십 이후의 세월을 살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 어이없이 다 놓아버리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도 있다. 둘째 오빠는 결혼에 실패한 모든 이유를 형과 동생 그리고 아귀 같은 여동생인 나 때문에 어떤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한다. 늘 직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전전하던 결혼 8년 되던 크리스마스이브 날, 오빠의 아내 아이만 덜렁 업고 나가 버렸다. 4년 뒤에야 아이를 보고 싶으면 오라고 연락이 왔다. 오빠의 아내는 이미 오빠와 살던 그 여자가 아닌 전사처럼 강한 모습으로 시장통에서 살아내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린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넷닷컴(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티보가 대리점주를 모집합니다!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

-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 초기 자본 없이 창업 가능
- 전화 한대면 남는 시간을 이용해 창업 가능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신영의 **세상 스케치**

66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도범스님의 책 출간을 축하드리며...

아주 오랜만에 도범스님을 뵈었다. 뵈어야지, 뵈어야지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몇 년이 흘렀다. 오래전에는 교인이지만, 사월 초파일이나 동짓날에 '문수사' 절에 행사가 있으면 일 년에 한두 번 다녀오곤 했었다. 그렇게 참석하며 회주이신 도범스님께 인사도 드리고 주지이신 혜각스님도 뵈고 오곤 했었다. 가깝게 지내는 지인 몇이 절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다녀왔었다. 또한, 나와 성향이 비슷하신 같은 교회의 지인께서도 도범스님과 잘 아시는 분이니 그렇게 특별한 날에는 함께 절에서 만나 뵈곤 했었다.

올해 들어 3월이었을까. 교회에서 Dr. Kim(권사님)을 뵈며 우리 하루 날짜를 정해 '문수사' 도범스님과 함께 점심을 하자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서로 바쁘니 날짜 정하기가 어려웠다. 도범스님을 뵈지 꽤 오래되어서 어찌 지내시는지 안부도 여쭙고 싶었기에 더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옛그제 교회에서 김 권사님을 뵈고 아예 스님께 여쭙지도 말고 날짜를 정하고자 의논을 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스님께 안부를 여쭙며 약속 날짜와 장소를 말씀드

리고 괜찮으신가 여쭙었다. 시간은 괜찮고 장소만 다른 곳이면 좋겠다고 답을 주셨다.

그렇게 시간에 맞춰 장소에 가서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범스님께서 곧 도착하셨다. 스님의 손에 두 권의 책이 들려져 있었다. 오랜만에 보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스님의 모습을 보니 편안해 보이시니 보는 나도 참으로 마음이 좋았다. 그리고 이번에 책이 출간됐다고 전해주시다. 조계종출판사에서 출간된 『골프 공과 선사』라는 제목의 '불교의 공에 답하는 골프 이야기'의 책이었다. 해마다 가을이면 '보스톤 문수사'에서 골프대회를 연다. 불교인뿐만이 아닌 어느 누구나 참가해서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도범스님은 대학시절 대학생불교연합회 발기인으로 불교에 입문하여 1967년 해인사에서 일타스님을 은사로 하여 출가한 뒤 해인사 선원을 시작으로 통도사 극락암, 태백산 도솔암, 봉암사, 용문사 염불암, 심원사, 망월사, 은해사, 기기암 등에서 참선수행하였다. 해인사 율원 제1회 졸업생이다. 고우스님에 이어 봉암사 주지를 역임하였고, 서암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결제는 물론 산철

결제까지 외호하였다. 그때 수많은 관광객이 봉암사를 찾아 스님들의 참선수행에 방해가 되자 선원 스님들과 함께 일주문 산문을 막았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봉암사 산문철폐가 지속되고 있다.

10·27법난 당시에는 봉암사 산철결제 대중으로 계시던 탄성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총무원에 올라가 종단사태를 수습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였다. 1992년 세계적인 명문 대학과 교육으로 유명한 도시 미국 보스턴에 문수사를, 2년 뒤에는 마이애미에 보현사를 창건하여 미국 포교에 힘쓰고 있다. '깨어 있는 마을'이란 뜻의 웨이크필드(Wakefield) 호숫가에 자리 잡은 문수사는 하버드 대학, MIT와 가까운 곳에 있어 한국 불교를 알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많다. 미국동부승가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문수사와 보현사 회주를 맡아 한국불교를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법을 하면서 낯선 풍토와 환경으로부터 건강도 지키고 마음수양도 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인 골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고 그 깨달음을 정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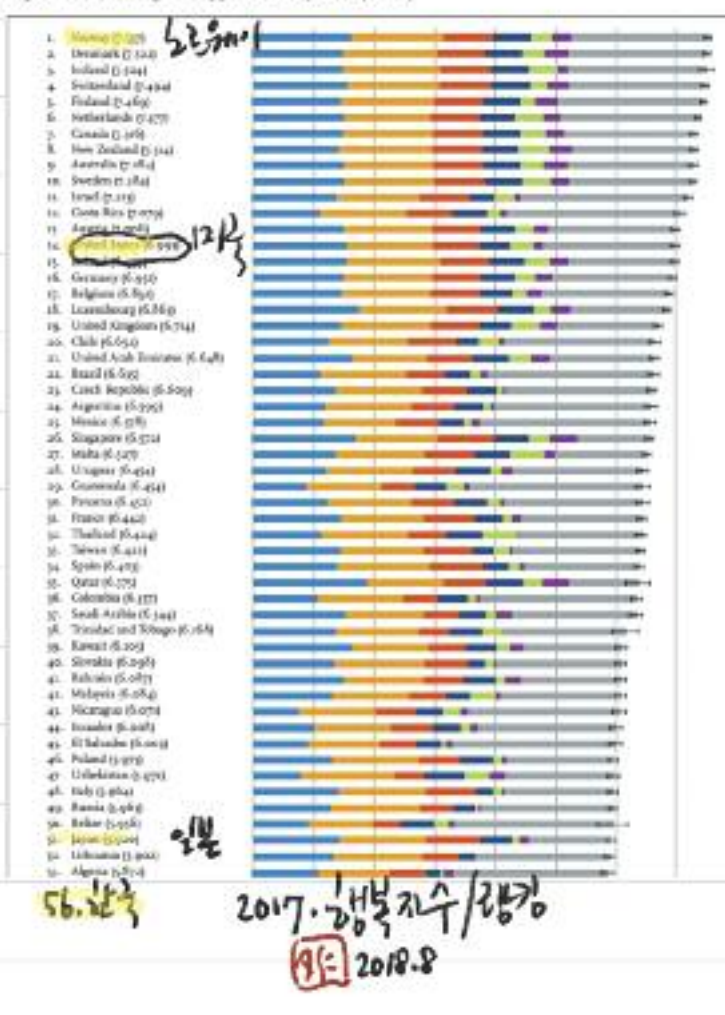
여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지은 책으로 『구도자의 발자취-봉암사에서 Boston까지』가 있다. 불교의 공간과 골프는 어떻게 만나는가.

"법구경(法句經)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면 남에게 원한을 사고, 지면 스스로 비굴해지나니, 이기고 진다는 마음을 버려라.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

사뭇 골프와 스님을 떠올리면 잘 어울리지 않을 듯싶은 그림일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너무도 잘 어울릴 모습이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깊이 명상하는 모습의 풍경은 더없이 아름다운 조화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회의 목사님들도 이렇듯 시간 관리를 잘하시어 건강도 챙기고 깊은 묵상도 할 수 있는 골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해본다. 성도의 눈치 살피지 마시고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못 백성들을 만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목회자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도 말을 축하드리며...

Figure 2.2: Ranking of Happiness 2014-2016 (Part 1)



한담객설閑談客說: 행복한 통계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세계 각국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통계와 도표가 있다. 두어해마다 발표되는 모양이다. 순위와 지수 기준에는 국내총생산과 기대수명이 포함된다 했다. 한국은 50등쯤은 된다고 했는데, 궁금증이 도졌다. 국민 총생산은 12등이라 했으니 순위도 상당히 높다. 기대수명치도 80을 훌쩍 넘겼다. 금메달 감이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순위가 한참 떨어진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한국은 행복감이 덜하는 말인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고, 결핍인가. 그리움도 등수를 매길수 있을까?

그리고 보니 행복이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 내게 있으니 때로는 가슴 아린

그리움이 따스기 때문 그러고 보니 행복이다 (홍수희, 행복한 결핍중에서)

통계는 숫자놀음이다. 숫자는 속이지는 않는다. 눈에 따라 입맛에 따라 해석만 달라진다. 한국에선 통계청장이 사표를 냈다고 했다. 아니, 경질이었던 모양이다. 높은 양반들과 의견이 맞지 않았던 듯 싶다. 신문에서 읽었다. 통계의 어설피름을 비꼬았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쓴웃음만 나온다. 한국의 높은 양반들은 행복한 통계만 원하는가 한다. 입맛에 맞는 통계던가? 하긴, 통계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없지도 않을 게다. 속일수 없고 거짓 없는 통계도 있

다. 한국엔 신생아 출생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단다. 2002년에는 연간 40여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십년이 채 되지 않는 올해는 32만 명이라고 했다. 통계는 틀림없을 텐데, 해석은 구구하고 걱정소리가 미국까지 들린다. 출산이 더 이상 행복한 건 아닌 모양이다.

매사추세츠주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두어해 전, 보스톤코리아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記事와 통계는 믿을 수 있겠다. 보스톤의 가을을 즐기며 사랑하시라. 행복할 것이다. 이 말은 절대적 통계에 준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福이 있도다 (마태 13:16)

수십년 전 한국이다. 한창 구호가 요란했더랬다. GNP와 GDP란 말이 귀에 익었을 적이다. 100불 소득 100억불 수출, 십진법과 숫자는 눈에 쉽게 다가와 기억할 수 있었다. 세월이 한참 지났다. 이제 한국 국민 일인당

소득이 3만불을 넘어섰다고 했다. 30배 이상 증가한 거다. 그런데, 수십년 전에 비해 30배만큼 행복해졌는가? 그건 모르겠다. 통계는 숫자로 표시되는데, 과학이라면 과학이다. 행복은 과학용어가 아니다.

2018 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위대한 승리!

최정에 50 만 대군을 막아선
 88 일간의 결사항전

초대형 전쟁 서사 블록버스터

THE GREAT BATTLE **인수성**

조인성 박성웅 남주혁 김설현 김광식 감독
Next Entertainment World presents WILL D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09 월 21 일 대개봉

BOSTON :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 617.423.5801

상영권 정보 및 티켓 예매 TheGreatBattle-Movie.com

 Facebook.com/HitKMovie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권 경품 이벤트

facebook.com/HitKmovie 혹은 instagram.com/HitKmovie 에서 <인수성> 관람 티켓 인증하고

American Airlines



항공권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기간 9/21-10/14]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현재 시세와 마켓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지금 사는게 맞나요?” “지금 파는게 맞나요?” 다.

난 올해로 25년 부동산 에이전트에 경력을 갖고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거래는 호황기였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을 시작으로 foreclosure 이다 short sale 이다 했던 마켓이 2012년부터 다시 픽업하여 지금 시세는 2007년보다도 더 올랐다.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융자 이율이 지난 5-6년간 아마도 미국 역사상 최하가 아닌었나 싶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고객들은 심플하게 집 가격만 보신다. 하지만 융자 이율이 0.5%만 낮아도 페이먼트가 한달아 \$100 에서 \$1000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그걸 30년으로 계산해 보면 융자 이율이 썰때 사는 건 바이어에게 집을 \$100,000 싸게 사는것 보다 크게 이익이 된다.

그럼 이태까지 (지난 5-6년간) 좋았

던 마켓이 다음달에 혹은 다음년도에 집 가격이 \$100,000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까?

올해 5월 6월까지만해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맞는(Priced right) 집이 나오면 오퍼가 10개 이상씩 들어왔다. 그러던게 6월이 지나면서 조금 주춤했다. 내말에 주춤의 뜻은 10개 들어왔던 오퍼가 4개에서 5개 들어왔다는 뜻이다. 그럼 잘 생각해 보자.

집을 사는 바이어는 딱 한사람이다. 셀러 입장에서는과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아직도 MULTIFUL OFFERS 받고 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현재 융자 이율은 4% 에서 5% 사이다. 내 추측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융자 이율이 오를것이라고 믿는다. 그럼 현재 맞는집이 나오면 오퍼가 5개에서 6개인데 집값이 갑자기 떨어질까? 또한 현재 렌트비는 아무것도 세이브 되는게 없다. Prin-

cipal이나 Interest에서 받는 deductible이다.

지난 50년동안에 미국 부동산 마켓을 보면 항상 웨이브가 있다. 올라 갔다가 내려 오는 웨이브다. 1997년에서 2007년은 아주 특별한 웨이브였다. No doc 이라는 프로그램때문에 무조건 30%만 다운 하면 인컴을 보지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호황기가 있었다. 그리고 서브 프라임이 터진 것이다. 하지만 다시 10년만에 2007년보다도 더 좋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나는 부동산 회사를하는 사람이다. 내가 항상 에이전트를 교육 시킬때하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세가지 의식주를 팔고 사는 사람은 밤을 굶지는 않는다고 한다.

쉽쉬고 사는동안 렌트를 하던 집을 사

던 집은 필수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팔기 좋고 사기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43 화랑세기花郎世紀, 9세 풍월주風月主 비보랑秘寶郎(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삼국사기(진평왕 본기 9년)에 생동있게 등장하는 '대세와 구칠', 그들이 신라를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 삼국사기만으로는 도무지 줄거리의 중요성이 납득이 잘 가지도 않고, 또한 무엇 때문에 김부식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사건의 내용마저 대단하지도 않는데 왜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화랑세기를 함께 읽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 주인공 중의 한 명인 대세, 대세는 비보랑과 이종사촌간이다. 대세의 어머니 골보骨寶는 비보랑의 어머니 실보낭주의 동생이다. 실보와 골보는 삼엽공주의 딸들이고, 범흥왕의 외손녀들이다. 대세는 '하늘이 재린 재주' 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평범한 인간에서 벗어나 신선神仙을 배우려 하였고, 스스로 모랑과 완적阮籍에 비교했다. 완적은 죽림칠현(235)의 한 사람이다. 대세도 죽림칠현들과 같이 술을 좋아하였다. 다만 죽림칠현들은 거문고를 타면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친구의 상가집에 가서도 고기를 먹고 웃음을 벗어가며 춤을 즐겼는데, 대세는 술만 먹으면 울고 행동이 거칠고 많은 유향들을 탐했다. 동시에 그렇게 행동하는 그를 사모하는 유향들이 많았다는 것은 아이러니컬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는 유향들뿐만 아니라 비보랑의 정처인 덕명공주와도 사통하였다(덕명공주는 진흥왕과 가야국의 월화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풍월주 비보랑은 대세를 용서하였고, 그의 타고난 천재天才를 가상히 여겨 전방대화랑으로 삼고자 하였다. 하지만 부제 미생랑을 비롯한 그의 일파가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지위가 낮은 좌방화랑으로 삼고, 또다시 우방화랑으로 삼아서 장차 중용할 것임을 말하면서 술을 멀리하고 수신과 인격도야에 힘쓰라고 권유하였다. 그러자 대세는 비보랑의 관용에 감동하여 매사에 처신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후 풍월주의 자리가 미생랑에게로 넘어가면서 비보랑은 미생에게 대세를 부탁하였다. 미생은 대세를 전방대화랑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대세는 미생을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고 그가 풍월주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복종하지 않았다. 동시에 미생의 첩의 동생인 제문랑諸文郎이 전방대화랑 자리를 원했기에, 미생은 대세가 유향들을 탐하고 과음에 거친행동荒亂을 한다는 책임을 물어 파직하였다. 그 당시 상선의 지위에 있던 비보랑이 의기소침한 대세를 위로하고 사문沙門 담수로 하여금 보살피게 했다. 이에 심기일전한 대세는 수양에 힘쓰고 신선의 도를 터득하고자 발분하였다. 그리고 대세는 공부를 더하기 위하여 같은 화랑인 구칠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

들은 다시 신라에 돌아오질 않았다. 대세와 구칠이 표면적으로는 '신선의 도' 를 터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화랑도 조직 내부에 불만을 품고 홀연히 사라졌기에, 상선 비보랑을 따르던 화랑들이 동요하였고 불안해 했다. 마침내 대세의 떠남으로 인하여 화랑은 당파가 다섯으로 나뉘어졌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대세의 떠남' 만 기록하고, 그로 인한 화랑도 내부의 분파는 기록하지 않았다.

먼저 통합원류파統合元流派, 통합원류파는 문노의 최정예들인 임종, 대세, 수일 등이 이끌며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여 국력을 강하게 하려는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하종을 재주가 없다고 혹평하였고 미생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하종은 세종과 미실 사이에서 태어났고, 미생은 미실의 동생으로 그 당시 화랑도의 풍월주였다.

다음은 대원신통과大元神統派, 대원신통파는 미실을 따르는 일파들이던 하종, 구륜공 등이 중심이 된 대원신통의 무리들이었다. 구륜공은 진흥왕과 정비 사도왕후의 삼남이다. 개에게 물려서 죽은 동륜태자와 제25대 진지왕의 동생이다.

세 번째로는 진골정통과眞骨正統派, 진골정통파는 문노의 일파들이지만 보리랑, 숙리부 등이 중심이 되어 지소태후의 명령을 받들었기에 가장 권력이 있었으며 옛 규범을 어김없이 따르는 진골정통의 무리들이었다. 보

리공은 이화랑과 숙명공주의 아들이며,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증조부이다.

네 번째는 이화류파和二花流派, 이화류파의 무리들은 좀 복잡하다. 문노는 세종을 따르고 충성을 했기에 그의 아들 하종과 다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 소위 문노정과文弩正派와 위에서 언급한 통합원류파 중에서 혼성된 무리들이다. 이들은 정숙태자를 풍월주로 세우고 원광을 부제로 삼으려고 했다. 정숙태자는 진흥왕과 숙명공주의 아들이다. 진흥왕(임종과 지소의 아들)과 숙명공주(이사부와 지소의 딸)는 이부동복 남매이다. 원광은 보리공의 형이며 '화랑도의 세속5계' 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가야파加耶派, 가야파는 범 통합파이지만 천주공을 풍월주로 세우고 서현랑을 부제로 삼으려고 한 무리들이었다. 천주공은 진흥왕과 월화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즉 비보랑의 부인인 명덕공주와 남매지간이다. 서현랑은 김유신의 아버지이다.

235) 죽림칠현竹林七賢은 중국위진남북조 당시 조씨의 나라 위魏에서 사마씨의 나라 진晉으로 넘어가는 어지러운 시절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죽림에 모여 거문고와 술을 즐기고 청담을 주고 받으며 세월을 보낸 완적阮籍, 혜강, 산도山濤, 상수, 유령劉伶, 완함阮咸, 왕용王戎 7인을 말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고국방문 성형을 고민하시나요? 의료관광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예뻐(젊어)지고 싶은 마음 & 잘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

경험 많은 휴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은 고객님의 사전 견적을 받아 전문 분야에 맞는 수술병원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상담을 통해 사전 견적을 받고 믿을 수 있는 한국 성형 휴람을 통해 준비해보세요.



전문성이 다른 시너지 성형외과의 풍부한 임상경험!

시너지 성형외과

시너지 성형외과는 약속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하루 적정 수술 횟수를 제한하여

‘쉐도우다터 & 대리수술을 사전에 차단’ 하고, 과잉 진료를 예방하여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완벽한 수술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1 맞춤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진단
-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경험을 통한 검증된 수술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주
-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type 01	type 02	type 03
안면거상+ 이중턱제거 880만원 660만원	3D입체분석 가상성형 시스템 550만원 가슴성형 473만원	상안검 187만원 154만원
PRP+ 지방이식 300만원 220만원	※ 보험료, 수술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안검 187만원 154만원



정경인 대표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두개막안면학회 정회원



황진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두개막안면학회 정회원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상속세 · 증여세(1)

분할증여 효과있나?

(사례) 보스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4억원을 한국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려고 한다. 이때 아버지로부터 2억원, 어머니로부터 2억원, 이렇게 나눠서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

한국의 증여세법과 미국의 증여세법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증여세를내느냐의 문제이다.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 donee)이 증여세를 내는데 반해,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증여자; doner)이 증여세를 낸다.

이때 한국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한국의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반대로 미국세법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증여자)이 미국의 거주자이면 증여를 한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국의 비거주자이면 미국내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토대로 위 사례의 김한국씨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김한국)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김한국씨가 한국의 비거주자(미국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산을 증여받을 때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김한국씨가 한국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김한국씨는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부모가 미국의 비거주자(한국거주자)이므로 미국에 있는 유형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다만,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인 김한국씨는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해야한다(form 3520).

그럼 위 사례와 같이 영주권자인 김한국씨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원씩 증여받으면 한 사람한테서 4억원을 증여받은 것보다 세금이 줄어들까?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

한국의 증여세는 증여건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증여세율이 누진세율이어서 증여가액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고자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국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을 분석해 보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합산과세됨을 알 수 있다.

- 첫째; 해당증여일전 10년이내의 증여일 것
 - 둘째;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일 것
 - 셋째; 증여재산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넷째; 법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닐 것
- 따라서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대상이 아니며, 10년이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동일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대상이 아니다. 또한 10년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라 하더라도 그 합계가 1천만원이 안되면 합산대상이 아니며, 아예 법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한 증여는 10년, 동일인, 1천만원의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

위 규정에서 ‘동일인’ 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일인’ 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장인과 장모(또는 시부모님)는?

위 규정을 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

를 한다하더라도 한사람이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누가 동일인인가?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동일인이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경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2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과 같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수증자의 형과 누나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경우는 어느 누구도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 형, 누나 세명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렇다면, 장인과 장모(또는 시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장인과 장모(시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나?

위 법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본다. 이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 아니면, 증여자와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위와 장인(장모),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다. 즉 장인과 장모가 사위에게 각각 증여하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동일인이 아닌 가족을 이용하면 절세가능

위 사례의 김한국씨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원씩 증여를 받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한사람으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은 것과 세금이 동일하다.

그렇지만,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분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들면, 아버지가 2억원, 할아버지가 2억원한다든지, 아니면 김한국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김한국씨가 아닌 며느리(김한국씨의 배우자)에게 각각 2억원씩 증여하는 방법 등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41) 배우자 유산 상속

세상에 태어나서 한눈에 반해 부부가 몇 십 년을 함께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난 후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멍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결정해야 하는 유산정리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되는 은퇴자산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은퇴자금인 IRA, 401k, TSP, SEP, SIMPLE, Rollover IRA, 등에 가입할 때 상속수혜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우선 수혜자(Primary)로 기록하며 부부가 함께 돌아가실 경우를 생각해 다음 수혜자(Secondary)를 자식들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상속수혜자로 설정하는 금융자산의 혜택은 상속되는 자산이 프로베이트(Probate Court)를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된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가정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통계적 사실입니다.

은퇴자산을 아내가 상속받았을 때 세 가지 방법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받은 자산 전부를 찾아서 세금을 낸 후 원하는 명품(?)과 여행으로 소비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 이름으로 변경하면 원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은퇴자산 처럼 됩니다. 세 번째는 수혜자 IRA(Beneficiary IRA), 즉 돌아가신 분의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고생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압니다.

두 번째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합니다. 남편의 나이가 70이고 아내의 나이가 65라고 가정합니다.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은퇴계좌를 변경하면 본인의 나이 7½가 될 때까지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RMD를 찾는다는 말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먼저 돌아가신 분 즉 남편 나이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내의 나이가 59½ 미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남편의 은퇴계좌를 자기 이름으로 변경한 후 생활비가 필요하여 은퇴계좌에서 돈을 찾는다면 세금은 물론 벌금 1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수혜자 IRA를 선택하면 벌금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갈 때 아이들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수혜자 IRA로 변경됩니다. 영어로는 'Beneficiary IRA, Decedent IRA, or Inherited IRA' 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받는 상속은 IRA의 주인(남아 있던 아내)이 사망한 날로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정해진 RMD를 찾아야 합니다. 정해진 RMD를 찾지 않으면 5년 규칙(Five-Year Rule)이 적용되어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은퇴자산 전부를 찾아야 합니다. 상속받는 아이의 나이가 50이라면 자기의 높은 수입과 은퇴자산에서 나오는 돈까지 수입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세금이 매우 많아집니다. 이 점을 상속받는 아이들이 반듯이 기억해야 합

니다. 상속되는 과정만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하는 상속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은퇴자산의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입니다. 한 예로 남편이 직장인이었다고 가정합니다. 몸담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많은 뮤추얼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아내가 물려받습니다.

이성적으론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남편이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포트폴리오는 투자 위험성도 높고 투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부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O비자를 준비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이래로 H-1B로 대표되는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승인율이 현격히 낮아지고 올해에 들어와서 마저도 심사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9월 10일까지 H-1B 급행수속 (premium processing) 신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왔던 정책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이민국이 최근 발표함에 따라 아직까지 H-1B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OPT 자동연장 시한인 9월 30일이 지난 이후에도 H-1B 최종 결과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H-1B 비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번만 지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급 수까지 제한되어 있어,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미국 취업의 길이 막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분 유지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중에 "Every Clouds has silver lin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H-1B의 길이 막혀도, 수많은 대안 비자들이 있습니다.

H-1B비자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

는 비자는 바로 O비자입니다. O비자는 아티스트 비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비자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방송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H-1B에 비해 O비자는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고,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적정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에이전시도 스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O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실력,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쉽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로써 이력서, 추천서, 작업물들과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스폰서쉽은 고용주, 에이전시, 또는 개인 에이전트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O비자 지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이력서입니다. 본인의 작업 이력과 지원 분야를 비롯하여 수상 경력, 출판/발행물 등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력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바로 스폰서쉽입니다. 스폰서쉽

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용주, 에이전시, 또는 개인 에이전트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 중 본인에게 가장 적당한 스폰서쉽을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오퍼 레터를 받아 놓으시거나 또는 잠재 고용주로부터 두세 개 정도의 고용 허가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 추천서와 포트폴리오입니다. 추천서는 지원자분의 '뛰어난 재능'과 해당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증언해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로, 다섯개에서 일곱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또한 지원자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개인 작업물인지 단체 작업물인지에 상관 없이 지원자분께서 작업하셨던 모든 자료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원자분께서 충분히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O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당사자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반면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은 수상 경력이 몇 개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신문과 인터뷰가 최소 몇 건이어야 한다든지와 같은 조건 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력

이 오히려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할 만큼 준비하여 지원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말 그대로 Petition, 즉 '청원' 이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가 미약하더라도 변호사는 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뒷받침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저희 고객이었다던 건축 디자이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이너는 직업 특성상 개인 작업보다는 단체 작업의 비율이 훨씬 큼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께서도 '과연 이것도 내 이력으로 넣어도 되나' 하고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건축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자료와 그 사이에서 고객께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보이셨는지 증명하였고, 결국 이 고객님께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H-1B에 대한 승인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O비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지원자 분들께서 추가자료요청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처음 준비할때부터 탄탄한 자료와 강력한 청원이 필요합니다. O비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 상속 .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런드로맷, 서머빌/매드포드지역, 연매상 230,000+, 사이즈 2000sq+
머니메이킹, 아파트 주거지역,

세탁소 풀 플랜트, 워터타운/월담지역, 연매상 185,000+ 좋은 지역

Reflexology(리플렉솔로지:손발건강 관리), 연매상 \$700,000, 연 순수익 \$250,000
아주 변화한 좋은 장소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도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4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7/30-8/24/2018(M-F)
- 대상: SSAT program-Jr. High 8th & 9th / SAT1 program-High school 11th & 12th
- 강사진: Heather Morton, Kristin Frank, J.H. Choi
- 수업 자료: College board 포함, 실용 연습 문제 선집
- 참가 비용: 수업료- \$1,800(4 주)/ 재료비-\$100 별도
- 모집 인원: 6명 제한(수강료 납부 시, 등록 확정)

	SSAT	SAT1
09:00-12:00	Verbal, Reading &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00-01:00	Lunch	Lunch
01:00-04:30	SSAT Practice Test(2.5h)	SAT1 Practice Test(3.5h)
04:30-05:30	Note-taking & Study Hall	Note-taking & Study Hall

보스톤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지원, 그리고 현지 가디언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컨설팅업체로서,
20년 전통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주중,말 학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름 방학 4주 단기 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형 수업이 SSAT와 SAT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테스트 가이드라인과 문제 유형 별 선답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전략들이 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진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필요시, 부모 마음 점심도 별도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